

계간 《간디IN》 2018년 겨울 호(통권 48호)

간디IN

2018

겨울



제천
간디학교

더불어 행복한 사람

gandhischool.org





차가운
밤의 시선



사진 속에 웃고 있는 누나들,
정말 행복해 보이는 군요.
이 사진처럼 세상 모든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우제 편집장(4학년)



차례

간디인 갤러리 차가운 밤의 시선

- 02 여는글 **힘오에 오염되다** :: 박우제 편집장(4학년)
- 06 특집 **친환경 맛이야!** :: 이한결 기자(5학년), 권윤서 기자(3학년), 이성민 기자(3학년)
전지적 채식 시점 :: 조연지 기자(4학년)
우리학교 식단의 새로운 '신화'를 쓰다!! :: 조예나 기자(1학년)
오늘은 내가 한끼대접 요리사~ :: 이성민 기자(3학년)
고독한 미식가 :: 이한결 기자(5학년), 권윤서 기자(3학년), 이성민 기자(3학년)
- 28 화제의 인물 **다 때려 박아! 디폴스!** :: 김서준 기자(2학년)
- 39 반가워요, 후원인 **플무질에 어서 오세요~!** :: 윤수민 기자(4학년)
- 43 사설 **농사 해서 뭐에 써** :: 이재형 기자(5학년)
- 48 개 요즘 잘 자빠대? **한 평생 빈둥거리며 살고 싶다** :: 강도운 졸업생(10학년)
- 51 **배움속으로 간디학교, 그 일상의 기록.** :: 윤수민 기자(4학년)
- 54 간디인의 짬은소식
- 56 스케줄러
- 58 기자 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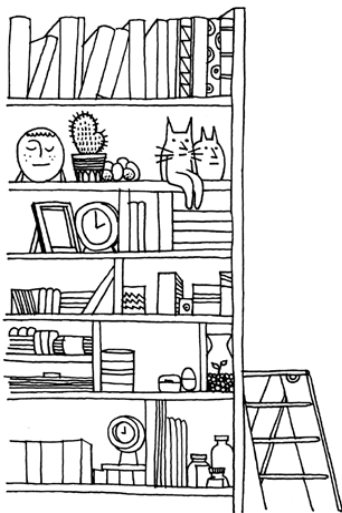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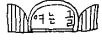


그림 · 미스터 김



〈혐오에 오염되다〉

박우제 편집장(4학년)

비야흐로 '혐오사회'입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온·오프라인을 막론하고 각종 혐오표현들로 인해 병들었으며, 정보가 빠르게 퍼져나가는 SNS, 커뮤니티 등을 통해 혐오표현들은 더욱 더 빠르게 우리 사회 속으로 스며들고 특정 개인을 넘어서 불특정 다수에게 상처를 남깁니다. 서로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는 우리는 오늘도 혐오에 점점 무더져가고 있는 듯합니다. 때로는 미소를 머금은 얼굴로, 때는 웃음기 없는 얼굴로, 혐오는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혐오'의 사전적 의미는 어떠한 대상을 '싫어하거나 기피하는 감정'입니다. 사회적으로는, 자신이 우위를 누리는 위치가 되었을 때 억울함과 원한 감정을 자신보다 약자에게 푸는 것, 위에서 아래로 향하는 감정의 방향성, 부조리를 존속시키고 사회적 소수자를 열외시키는 보수적 '권력 감정'입니다. 자신의 원한과 굴욕을 전혀 상관없는 약자에게 되풀이하며 사회의 불평등, 불합리하게 유지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의 혐오표현 조사¹⁾결과에 따

르면 성 소수자는 98.0%, 장애인 응답자 95.0%, 여성 응답자 90.4%, 이주민 응답자는 50.0%로 집단 대다수가 혐오표현을 경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듯 혐오는 주로 사회적 소수자를 겨냥하고 있으며, 여성, 장애인, 외국인노동자,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이 혐오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곳 제천간디학교에도 혐오 문화가 존재합니다. 이 미 은은하게 우리의 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죠. 오늘도 그중에서도 '낙인' 과 '이름표붙이기' 문화에 대해 말해보겠습니다.

“너 살쨍다.”, “키가 작다.”, “이상한 행동을 한다.” 먼저 이 ‘낙인’ 문화는 한 사람의 특징, 생김새, 행동, 성격, 신체, 등 그 사람의 부정적인 특징을 한 이미지로 만들어 놀리는 문화입니다. 가장 많은 경우는, 서로를 ‘표준화’ 시키며 한 사람에게 표준에서 벗어나는 무언가를 가지고 놀리는 것입니다. 외모, 신체, 행동, 성격 등에 대한 솔한 평가가 뒤를 이으며 누군가에게는 콤플렉스가 만들어지기도 하죠. 알게 모르게 우리는 서로를 표준에서 벗어나면 이상한 것이라고 강요합니다.

1) 국가인권위원회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만 15~59세 중 우리 사회에 대표약자인 성적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그리고 그 외의 여성 등의 표적 집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다음은 ‘이름표 붙이기’ 문화인데 앞서 말했던 부정적인 것들을 이미지화시켜서 이미지에 주인의 이름을 따 다른 사람에게 붙이는 문화입니다. 예를 들자면 A가 C의 똥똥함을 가지고 B에게 “너 C같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름이 붙여진 B도, 이름의 주인인 C도, 주변에 있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름을 붙인 A가 표현한 느낌을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장난이라고 여기지만, 문제점은 그 주변에 있던 다른 사람들한테 이런 C의 이미지가 공유되고 점차 “그C는이렇다” 라는 이미지로 낙인을 찍는다는 점입니다. 또한 이런 이미지는 한번 새겨지면 잊혀지기가 쉽지 않는데, 만약 안 좋은 이미지로 낙인이 찍히고 그 이미지가 이름화 되어서 재생산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붙여

진다면 보이지 않는 폭력이 만들어집니다.

필자는 최근 들어 더더욱 우리에게 이런 장난에 대한 하는 감각이 무뎠음을 느낍니다.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또래압력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또래압력은 또래 집단으로부터 동일 행동을 하도록 가해지는 사회적 압력인데 불만을 제기할 경우 진지충²⁾, 갑분싸 메이커³⁾ 등으로 불리어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감정도 또래압력에 일부하고 할 수 있겠죠.

물론 이런 것을 가볍게 장난으로만 하하호호 서로 즐겁게 웃으며 할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말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사소한 장난들이 어떻게 혐오로 진화하는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했

2) 진지충은 진지에다가 벌레 충(蟲)자를 붙인 비속어다. 흔히 웃자고 하는 말에 과도하게 진지하게 반응해 덤벼드는 사람을 비꼬며 쓴다.

3) 갑분싸는 “갑자기 분위기 싸해지는 거임” 에 준말이다. 갑분싸 메이커라고하면 갑자기 분위기를 싸하게 만드는 사람이다.

듯이 혐오는 ‘권력감정’ 인데 이런 장난을 치면 심리학적으로는 자신이 타인을 탄압하는 ‘강자가 될 수 있다는 안정감’ 을 준다고 합니다. 즉 이런 장난이 보이지 않는 권력을 만들어 낸다는 것이고, 이런 문화를 간과할 수록 우리는 서로를 물어뜯고, 비방하고, 혐오하고, 차별하며 먹고 먹히는 약육강식의 관계에 동조합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는 고스란히 약자에게 전해지고 약자는 그만큼 고통을 받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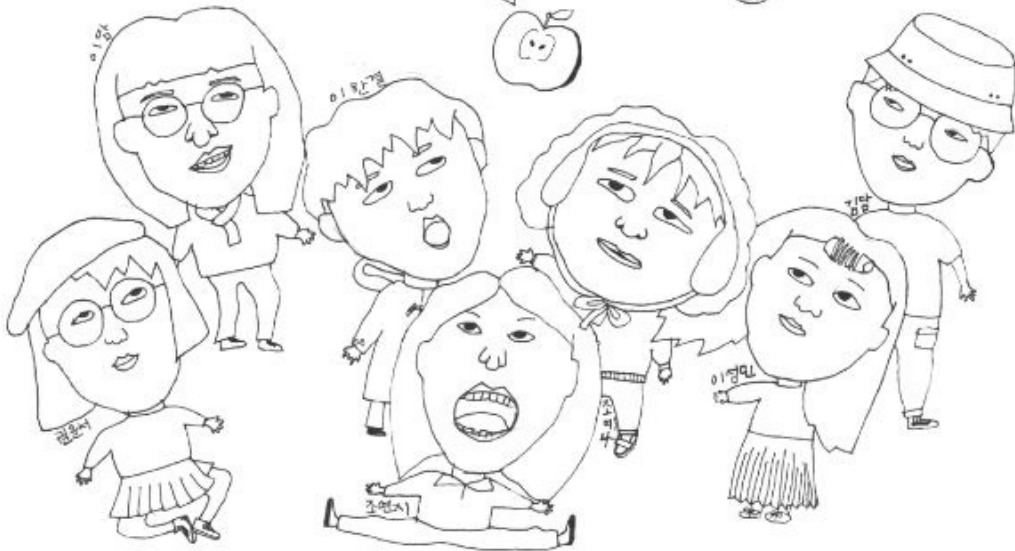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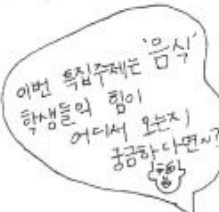
이제는 생각하고 경계하며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계를 맺을 때 혹시 내가 이런 힘으로 약자를 괴롭히지는 않는지, 혹은 내가 괴롭힘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강자가 되어 또 다른 약자를 공격하는지 등등... 우리 모두가 항상 자신을 관찰하며 되돌아보는 습관을 가진 다음 분노의 힘⁴⁾으로 혐오를 몰아냈으면 좋겠습니다. 혐오에 대한 저항은 한 개인이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어렵기도 하거니와 외롭고 공허한 외침이 되기 쉽기에, 혐오에 저항하려면 집단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소한 방법들이 우리 공동체의 평화와 행복을 이끄는 것을 모두가 알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제는 우리의 손으로 혐오의 카르텔을 끊어야하지 않을까?” 라는 말을 남기며 2018년 한 해를 닫는 겨울호! 출발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4) 분노는 혐오와는 다른 방향성을 얘기하며, 부조리의 고리와 침묵의 카르텔을 끊어내는 좋은 징조다.



요리조리 전고리



친환경 맛이야!

이한결 기자(5학년), 권윤서 기자(3학년),

이성민 기자(3학년)

‘간디학교의 먹거리 철학’ 을 생각하면 무엇이 떠오르는지 학생들에게 물어본다면, 과연 무어라 답할까요? 실제로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다양한 답이 있었지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생협’ , 그중에 으뜸은 ‘한살림¹⁾’ 이었습니다. 매주 한살림에서 구매한 다양한 간식과 식재료가 우리 간디인들의 밥상에 등장하는데요, 하지만 한살림(생협)의 제품은 학생들에게 큰 인기를 끌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위기의 한살림, 과연 간디인들에게 사랑 받을 수 있을까요? 이한결, 권윤서, 이성민 기자가 한살림을 위해 나섰습니다.

생협 = ?

간디학교에 다니는 학생이라면 절대로 생협을 모르지 않을 겁니다. 학교 식단에서나, 가정에서나 생협 제품은 간디인들의 입에 오르내리지요. 그렇다고 우리는 건강한 음식만 먹지는 않습니다. 매일매일 기숙사에서 라면을 먹고, 치킨을 시켜 먹으며, 달달한 불량식품을 사먹으러 매점에 갑니다. 그렇다면 생협은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있을까요? 간디인 68명을 대상으로 ‘생협 하면 연상되는 키워드 3가지’ 를 물어본 결과,

52개의 키워드가 간디인들의 응답에서 나왔습니다. ‘싱거움’ 부터 ‘먹거리 철학’ , ‘엄마’ 등 정말 다양한 키워드가 나왔지만 그 중의 으뜸은 ‘유기농’ 이었습니다. 37명(45.6%)의 학생들이 유기농을 떠올렸고 뒤따라 친환경 30명 (37%), ‘건강’ 21명(26%)이 가장 많이 거론 된 키워드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키워드 역시 존재합니다. ‘맛없음’ 을 떠올린 14명(17%)의 학생들과 ‘비쌌’ 을 떠올린 10명(12%), 그 외 ‘싱거움’ , ‘밍밍함’ 등 주로

1) 한살림은 생명의 세계관을 바탕으로 농산물 직거래 운동과 지역 살림 운동을 펼치는 비영리 생활 협동 조합입니다. 밥상살림, 농업살림, 생명살림을 모토로 모심, 살림, 기쁨, 공진화와 같은 키워드들이 단체의 중심에 있습니다.

맛에 대한 부정적인 키워드가 학생들의 응답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를 뒷받침 하듯 ‘생협제품과 일반 제품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 생각되는 부분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에 23명 (28%)의 학생들이 ‘맛’ 을 선택했습니다.

또한 가장 많이 거론된 ‘유기농’ , ‘친환경’ 이란 키워드 자체도 과연 ‘긍정적’ 인 키워드 인가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의 먹거리 철학에서 유기농과 친환경은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학생들의 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되는지 고민 할 필요가 있지요. 2018년도 학생회에서 66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먹거리 철학에 관한 설문을 진행한 결과 ‘본인은 학교의 먹거리 철학을 잘 지키며 살아가고 있나요?’ 라는 질문에서 무려 47명(71%)의 학생이 ‘아니오’ 라고 답했습니다. 47명의 학생이 먹거리 철학을 지키기 힘들었던 이유라고 답한 원인 중 가장 많이 언급된 건 ‘싸고 맛있는 일반제품’ (32명, 48%)과 ‘매일 찾아오는 배고픔’ (26명, 39%)이었는데요. 이런 설문조사를 통해 아직까지는 학교의 먹거리 철학과 생협 제품의 의미가 인정받지 못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취재하던 기자들은 의문이 생겼습니다. 과연 생협 제품은 맛이 진짜로 없는 걸까요? 정녕 ‘싸고 맛있는 생협제품’ 은 없는 걸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생협 제품과 일반제품을 가지고 간디인들과 블라인드 테스트를 진행했는데요, 그 현장으로 가보시죠!

일반식품과 생협제품, 알아낼 수 있을까?

이곳은 기숙사. 기자들은 허기에 굶주린 간디인을 하

나씩 데리고 비밀의 방에서 블라인드 테스트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안대로 눈을 가려 정체를 모른 채 같은 종류의 생협 제품과 일반 제품을 차례로 먹어 평가를 부탁해보았는데요, 과연 간디인들의 솔직담백한 평가는 어땠을까요?

〈비빔면〉



1번: 한살림 비빔라면 (140g) - 1,400원

2번: 팔도 비빔면 (130g) - 800원

-강하늘(1학년)

(1번을 먹었다)

하늘: 매워...

Q. 매운 거 잘못 먹어?

하늘: 어 나 잘못 먹어...

(2번을 먹었다)

하늘: 2번째가 더 나아.

Q. 왜 두 번째가 더 나은 것 같아?

하늘: 뭔가 그냥 더 맛있어

Q. 어떤 부분이 더 맛있어?

하늘: (2번에서) 약간 참기름 맛이 더 많아.

Q. 1번은 맛이 어때?

하늘: 1번도 맛있는데 먹기 좀 매워.



(안대 벗고)

Q 둘 중에 뭐가 한살림 음식 같아?

하늘: (1번을 가리키며) 이거.. 색깔이 좀?

Q 아 색깔... 맛은?

하늘: 맛은 뭐가 (2번을 가리키며) 이게 더 한살림 것 같아.

-박연우(3학년)

(1번을 먹었다)

연우: 점심으로 나온 쫄면 아니야 이거?

Q 맛을 잘 생각해봐. 일단 어떤 음식 같아?

연우: 오늘 점심에 나온 쫄면 같아.



Q ㅋㅋㅋㅋㅋㅋㅋㅋ맛있어?

연우: 맛있어.

Q 오늘 점심에 먹었던 거랑 맛이 비슷해?

연우: 응.

(2번을 먹었다)

연우: 음~ 음~ 2번은 쫄면에다가 불닭볶음면 소스 섞은 것 같아.

(안대 벗고)

Q 하나씩 다시 먹어봐

(2번을 먹었다)

연우: 진짜 맛있다고 와...

Q 방금 먹은 게 몇 번 같아?

연우: 1번. 아니야?ㅋㅋㅋㅋ 다음 걸 먹어봐야 알지.

(1번을 먹었다)

Q 다시, 뭐가 1번 같아?

연우: (1번 가리키며) 이거.

Q 그럼 뭐가 한살림 것 같아?

연우: (1번 가리키며) 이거.

Q 이유가 뭐야?

연우: 이게 더 맛이 없어.

Q 맛이 어떤데? 어떤 느낌이야?

연우: 일단 면이 너무 딱딱해. 소스는~ (2번 가리키며) 이게 더 라면스프의 불량한 맛이 나.

Q 네가 소비자라면 어떤 걸 사먹을 거야?

연우: 뭐가 더 싼데?

Q 2번이 더 싸. 가격이 두 배 차이야.

연우: 당연히 이거. (2번)

<양갱>



1번: 해태 연양갱 (55g) - 800원
 2번: 한살림 팥양갱 (40g) - 1,000원

-한강(4학년)

(1번과 2번을 먹었다.)

강: 2번은 물면 잘 나뉘지는 데 이거(1번)는 이빨에 붙어. 둘 다 팔 맛 나는데 이게(2번) 좀 더 단 팔 맛이 나고 이게(1번)이 좀 덜 달고, 식감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는 건지 모르겠지만.



-최민정 (5학년)

(1번과 2번을 먹었다.)

민정: 맛이 달라 돌아. 2번이 맛이 더 무겁고 1번이 좀 더 가벼워. 씹는 것도 좀 더 가벼워. 나는 1번이 더 맛있어. 이거(2번) 너무 달아.

Q. 뭐가 한살림 것 같아?

민정: 2번?

<핫케이크>



1번: 한살림 핫케이크가루 (600g) - 4,200원
 2번: 오뚜기 핫케이크가루 (500g) - 3,700원

-박선영(2학년)

(1번을 먹었다)

선영: 핫케이크 아니야? 이거 상당히 생협 음식 같은데?

Q. 어떤 맛인데?

선영: 유기농 맛이야. 천연 천연해(웃음)

(2번을 먹었다)

선영: 이거 일반이다.

Q. 그게 느껴져?

선영: 훨씬 단데? 아닌가?



(안대를 벗었다)

Q. 뭐가 더 맛있어?

선영: 난 이거(2번).

Q. 왜 2번이 더 맛있어?

선영: 달잖아.

Q. 1번은 안달아?

선영: 달긴 단데 밀가루 맛이 더 많이 나는 것 같아.

일반 핫케이크가 더 맛있어.

Q. 맛의 차이는 어느 정도인 것 같아?

선영: 둘 다 맛있긴 맛있어. 친환경 맛이긴 해도(웃음)

〈요플레〉



1번: 한살림 떠먹는 요거르트 (90g×2) – 3,500원

2번: 매일 바이오 플레인 (85g×4) – 2,400원

–권태윤(4학년)

(1번을 먹었다)

태윤: 맛있는데? 근데 그렇게 달진 않아.

(2번을 먹었다)

태윤: 잼이랑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 (1번 보다) 좀 더 시고 많이 달진 않고.

Q. 뭐가 더 맛있어?

태윤: 1번.

Q. 왜? 어떤 면에서?

태윤: 그냥 요플레만 먹었을 때 1번이 더 달아서. 근데 2번도 잼이랑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



(안대를 벗었다)

Q. 뭐가 한살림 것 같아?

태윤: 이거(2번)

Q. 아, 2번이 한살림 것 같다고?

태윤: 음. 좀 덜 달아서 한살림 것이 아닐까...

Q. 결론적으로 1번이 좀 더 달고 일반식품느낌이 난

다는 거지?

(결과 공개)

태윤: 1번이 한살림이구나~

-오다민(5학년)

(1번을 먹었다)

다민: 요플레? 맛있어.

(2번을 먹었다)

다민: 맛있어.

Q (웃음)둘 중에 어떤 게 더 맛있어?

다민: 둘이 약간 다른 맛인데, 2번이 좀 더 유산균 느낌이야.

Q 그래서 개인적으로 뭐가 더 땡겨?

다민: 내 취향은 2번.

Q 어떤 면에서?

다민: 둘이 다른 맛이긴 한데 유산균 요플레를 좋아해서. 하지만 둘 다 맛있어.

Q 1번과 2번의 장단점이 있다면?

다민: 1번은 좀 더 달고 2번은 집에서 만든 맛이야.



(안대를 벗었다)

Q 뭐가 한살림 거 같아? 맛만 봤을 때.

다민: 난 2번 일거라고 생각하는데 웬지 1번일 것 같아.

Q 가격은 6~700원 1,200원 쯤 되는데 뭘 사먹을 것

같아?

다민: 애(1번).

Q 어? 왜?

다민: 2번이 더 맛있긴 한데 1번이 좀 더 짙든 거려서 좋아.

<딸기잼>



1번: 한살림 딸기잼 (280g) - 4,500원

2번: 오뚜기 딸기잼 (300g) - 3,000원

-김승훈(5학년)

(1번을 먹었다)

승훈: 딸기잼이야? 그냥 평범한 딸기잼인데? 잠깐만, 학교 딸기잼 맛이 나는 것 같아. 약간 아침에 빵 나올 때 같이 나오는 딸기잼 맛.

(2번을 먹었다)

승훈: 이게 더 나은 것 같아. 시중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맛.

(안대를 벗었다)

Q 그럼 이 중에서 뭐가 1번이고 뭐가 2번인 것 같아?

(다시 먹음)

승훈: 어?! 잠깐만 헛갈려... 여기서(1번) 그 학교 딸

기째 맛이나.

Q 이중에서 한살림 건 뭐인 것 같아?

승훈: 당연히 2번이지.



Q 한살림이 덜 달아서 1번이 승자가 된 거야?

승훈: 이게 덜 달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에서 아침에 빵이 나올 때 나오는 짬 맛이야. 그 맛을 어떻게 잘 설명을 못하겠는데 그 유기농스러운 맛이 있어. 사실 딸기잼에서 그렇게 큰 차이는 못 느끼겠지만 개인적으로 2번이 더 나왔어. 맛이 더 깔끔해.

Q 가격은 두 배정도 차이가나.

승훈: ㅎㅎㅎ

Q 소비자로서 뭘 선택할거야?

승훈: 당연히 이거지(2번) 뭐ㅋㅋㅋ

비록 일반 식품이 더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이 정도면 생협제품도 먹어볼만 하지 않을까요? 테스트를 진행해보면서 생협과 일반제품의 '맛 차이'는 어찌면 우리 인식 안에 들어있는 편견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2배 가까운 가격 차이는 학생 신분인 간디인들로서 부담이지만, 누군가가 건넌 생협 제품을 열린 마음으로 먹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미 설문에 응답한 81명 중 51명(71.6%)이 '생협 제품의 필요성을 느낀다'고 답해주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로는 건강(65.5%)을 뽑았지만, 생협 제품이 건강을 위해서 애써 먹는 한약 같은 느낌으로 남지는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학교에서는 인기가 없지만 집에서는 적어도 1주일에 한번 생협 제품을 접하는 친구가 46명(56%)이나 되는데요. 많은 부모님과 학교가 좋은 먹거리를 위해 생협 제품을 구매하시지만, 그저 맛과 건강의 대립으로만 기억되고 평가되지 않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학교와 생협의 먹거리 철학을 서로 알아가는 순간, 지긋지긋하던 '유기농' 과 '친환경' 의 가치도 조금이나마 맛볼 수 있지 않을까요? 어릴 적 부르던 동요에서 밥상만큼 훌륭한 배움터가 없다고 배웠는데, 모두 잊은 지가 오래됐나 봅니다. 우리 모두 알고 먹읍시다. 서로 알려주며 먹는다면 더 더욱 좋겠습니다.)

전지적 채식 시점

조연지 기자(4학년)

한 살림 블라인드 테스트 재미있게 보셨나요? 지금부터는 학교에서 5년 중에 2년을 채식과 함께해온 김예현 학생을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일을 하던 만 시간이 넘으면 전문가가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예현학생는 벌써 만 칠천오백 이 시간을 채식과 함께 해왔더군요.

채식에 관심이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모두에게 유익하고 재미난 예현학생에 인터뷰를 바로 보시죠!!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4학번 김예현입니다.

언제부터 채식에 관심이 있었어?

채식에 관심이 있었던 건 중학교 1학년 때? 원래 나한테 필요한 건 밀가루 단식이라고 생각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어찌다 보니 채식을 하게 됐어. 채식 말고 다른 것에도 관심이 많이 있었어.

채식 얼마나 했어?

2학년 2학기에 한번 했고 3학년 때 1년 내내 4학년때는 1학기 한번 했어. 그래서 총 2년 정도 했어.

그만둔 이유가 뭐야?

2학년 때는 별생각 없이 한번 했으니까 됐지 하면서 그만뒀고 3학년 때는 채식으로 논문을 쓰고 있어서 그만두기가 좀 그렇더라고 스스로도 그만두고 싶지 않고 좋았어, 그래서 4학년 때는 좋았던 걸 계속 지속하고 싶었는데, 해외이동학을 가야 해서 채식을 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해서 그만두게 됐어.

채식에도 종류가 엄청 많잖아, 그중에 어떤 채식을 했어?

기억이 잘 나지는 않지만 2학년 때는 돼지, 소, 닭, 오리 같은 육류를 안 먹었고

3학년부터는 육류와 더불어 해산물과 유제품까지 안 먹었어.

그리고 4학년 때는 다시 육류만 안 먹는 채식을 했어.

학교에서 채식했을 때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이 불편했어?

좋았던 것도 있지만 감사했던 건 조리사선생님들이 채식자들 밥이랑 간식을 항상 따로 챙겨 주시는 게 번거롭고 힘든 건데, 항상 챙겨주셔서 감사해, 채식의 좋은 점은 건강이 좋아지는 것 또 안 좋은 점은 식단에 고기 나오는 횟수가 내가 느끼기에 많아지는 것.

불편했던 문제들을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겠어?

옛날에 했었던 고기 없는 월요일을 활성화하면 좋을 것 같아. 그것 말고도 다른 것들을 할 수 있지만 접하기 쉬운 게 식단이니까... 식단을 좀 신경 쓰면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채식자 말고 다른 사람들도 채식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하는게, 고기 없는 월요일을 좀 더 잘 활용하는 방법일 것 같아.

채식하면서 느낀 몸에 변화가 있어?

채식을 하면서 피부도 좋아지긴 했는데, 난 피지가 왕성할 때여서 엄청난 차이를 보진 못 했어. 근데 몸이 되게 가벼워지긴 했어. 채식하면 열량이 빨리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깐 빨리 배가 고파지고 그래서 끼니를 잘 챙겨 먹었던 것 같아. 그만큼 안 좋은 점도 있는데, 고기를 안 먹다 보니깐 단백질이 부족해서 그걸 탄수화물로 채워서 난 내가 탄수화물 중독자인 줄 알았어. 그래도 채식을 하면 마음이 안정되는 느낌이 있어.

채식을 못 하는 상황은 어떻게 대처했어?

최대한 먹을 수 있는 걸 찾았고 정말 없다면 안 먹거나 따로 사 먹었던 것 같아. 또 외부가 아니라 학교에 선삼계탕이 나오는 날에 조리사 선생님들이 너무 바쁘시니까 그날은 찰쌀밥에 밀반찬 먹고 그랬어.

채식을 주제로 논문을 쓰게 된 계기가 뭐야?

채식 하다 보니깐 관심도 있었고 우리 학교 식문화에 대한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고민하다가 쓰게 됐어.

근데 진짜 채식할 때 먹으면 안 되는걸 1도 안 먹었어? (ex 육류)

아니 많이 먹었어, 그래도 논문 쓸 때는 최대한 안 먹으려고 노력했어. 그래서 강박감이 있었어. 과자를 먹는데 다 먹고 보니 우유가 함량 되어 있다! 그러면 스스로 너무 자괴감이 들어서 스트레스 엄청나게 받고 그랬어. 근데 논문 쓰면 쓸수록 그럴 필요는 없다는 생각을 했어. ‘채식을 하면서 채식주의자라는 것이 억제해올 필요는 없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 그리고 3학년 때 말고는 자주 먹었어. (웃음)



채식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 될 만한 자료나 책 추천해 줘?

일단은 내 논문이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봐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육식의 종말〉이라는 책이 있는데, 채식 책이 좀 극단적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도축공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또 생태계에 어떤 피해를 주고 있는지를 알고 싶으면 한번 봐도 좋을 것 같아. 또 〈잡식가족의 딜레마〉라는 황윤감독님의 영화도 도움이 되었어.

그리고 〈비건 페스티벌〉이라는 큰 행사가 1년에 2번 정도 있는데, 채식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접하기 쉽게 만들어진 행사여서, 고기를 안 먹어도 대체 할 수 있는 친환경 식품들과 용품을 많이 팔고 많이 알리려고 하는 행사야. 되게 재미있어

혹시 콩고기 먹어봤어?

응 먹어봤어. 학교에서 돈가스 나오는 날 채식자들은 콩가스를 만들어 주는데, 돈가스랑 맛이 비슷한 것 같아. 근데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하더라고. 콩고기 자체가 대체 식품이다 보니깐 애초에 고기를 안 먹고 살 수 있는데, 고기 식감이 그렇다는 이유로 그걸 왜 대체해서 만들지? 이렇게 이해 못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그래도 나는 맛있었어.

채식했던 본인에게 한마디 해줘!

이제 필리핀도 갔다 왔는데 다시 시작하자. 그렇지만 걱정되는 건 학년이 높아지고 사회에 나가야 하는 시기가 될수록 사람들 만나고 먹고 살아야 하잖아. 근데 다른 사람들과 같이 먹고 살면서 내 신념을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어, 그래도 시작한다면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 정도로 하고 싶어.

앞으로 채식할 사람들에게 한마디해줘!

내가 논문 쓰면서 느꼈던 압박감 같은 건 느끼지 말고 최대한 본인의 마음이나 취지를 돌아보고 편하게 했으면 좋겠어. 채식하는 사람도 그걸 지켜보는 사람도 최대한 편견 없이 지켜봐 줬으면 좋겠어. 그냥 있는 그대로 될 하던…….

10000시간의 찜밥이 느껴지는 인터뷰였어요. 몸도 마음도 좋아지는 채식은 오늘부터 다 함께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요? 학교에서 거의 사라진 고기 없는 월요일을 좀 더 활성화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인터뷰해준 예현언니 고맙고 언니의 신념을 지키며 채식을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랄게요~. 🌱

1) 돼지고기 대신 대두로 만든 식물성 고기를 돈가스같이 만든 것을 콩가스라고 한다. 콩고기를 먹으면 위암 발병율이 43% 감소한다.

우리학교 식단의 새로운 '신화'를 쓰다!!

조예나 기자(1학년)

앞에 기사 재미있게 보셨나요? 저도 한번 채식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요번 기사는 후조쌤의 빈 자리를 채워주실 새로오신 정신화쌤을 인터뷰했습니다. 다들 신화쌤의 귀여운 매력에 빠질 준비 되셨나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식품영양과를 전공했고, 요리 하는걸 좋아하는 정신화입니다.

우리학교에 오시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서울에서 오래살다가 새로운 삶을 살고싶어서 고민하던 중에 학교에 새로운 영양사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고 공동체 생활이 궁금하기도 하고, 대안교육도 궁금해서 여기면 새로운 삶을 살수 있을 것 같아서 오게됐습니다.

학교에 첫인상은 어떠셨나요?

정말 자연 친화적이고 작업장 같은 생활에 필요한걸 가르쳐주는 학교인거 같아서 첫인상은 좋았습니다.

학교 오시기 전에 하셨던 일을 하셨나요?

저는 오기전에 서울 송실고등학교에서 영양사로 일

했습니다. 더 전엔 선교단체에서 일했습니다.

학교에 처음 오시고 가장 기억에 남는 학생은 누구인가요?

4학년 김마루학생이 제일 처음 본 학생이어서 가장 기억에 남아요.

본인이 생각하시는 우리학교에 최고의 메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학생들이 잘먹는 메뉴를 최고의 메뉴라고 생각해요. 학생들이 보통 어묵조림하고 소세지볶음을 잘 먹더라고요. 미역국도 잘 먹고요.저번에 한번 치즈볼 닭을 했었을때도 다들 맛있게 먹어서 그것도 최고의 메뉴라고 생각해요.

제일 자신있는 요리는 무엇인가요?

저는 된장찌개가 제일 자신있어요. 먹으면 속이 편



해지는 느낌이어서 자주 끓여먹다 보니까 제일 잘 하는 거 같아요. 너무 단순한 요리인가?(웃음)

식단은 어떤 기준으로 짜시나요?

학생들이 좋아하는 메뉴를 중심으로 짜요. 메뉴가 마음에 안 들어서 밥을 안 먹는 일이 있으면 인종잖아요. 그래서 한 가지라도 만족할 수 있게 하루에 한번은 학생들이 좋아하는 메뉴를 넣고 있어요.

한끼대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정말 한끼대접이 너무 고마워요. 학생들이 조금 어설퍼도 음식을 먹기만 하지 않고, 음식을 해서 전 교생들과 나눠먹는다는 취지가 너무 좋아요. 저는 이 활동이 계속 이어나갔으면 좋겠어요.

주로 해드시는 음식은 무엇인가요?

저는 나물을 좋아해서 나물 종류를 많이 해먹어요.

일반학교와 우리학교의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느끼세요?

보통 일반학교는 급식에 대한 감사함이 없고, 급식에 대해 불만이 많아요. 직접 설거지도 안하고. 근데 우리학교 학생들은 기숙사 생활을 하니까 일반학교 아이들 보다 더 배고파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밥을 일반학교 학생들보다 더 감사한 마음으로 먹는 거 같아요. 잔반도 많이 안 남겨요. 그런 점에서 저는 정말 다르다는 걸 느끼고, 너무 감동 받았어요.

제일 잘 먹는 간디인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음... 다 잘 먹긴 하는데, 수진쌤이 제일 많이 먹어요. 제일 많이 먹기도 하고, 맛있게 먹어요.

수진쌤이 먹고있는 걸 보면 뿌듯하고, 입맛이 돋는

느낌?이 들어요.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우리학교 학생들의 식사에
절은 어떤가요?

저는 정말 좋은편이라고 생각해요. 전에 일하던 학
교에서는 식판이나 숟가락을 구부러트리는 경우가 많
았는데, 우리학교는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다만 부탁
드리실은건 다같이 먹는거고 많은사람들이 먹을 수 있
게 욕심을 안 냈으면 좋겠어요.

어두운색 바지를 입으신걸 한번도 본 적이 없는
데, 바지를 고르시는 기준이 있으신가요?

요즘은 많이 입었는데(웃음) 제가 체구 작는데, 어
두운 색을 입으면 더 작아보여서 밝은색을 더 많이입
어요.

그래도 겨울에는 밝은색을 입으면 더 추운느낌이여
서 검은색을 많이 입어요. 학생들이 내 바지에 관심이
많은지 몰랐네(웃음)

간디인들과 식당밖에서 하고 싶은 것이 있나요?

음..제가 교회를 다녀서 같이 성경공부나 성경에 관
한 토론 같은 것들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별론
가?(웃음)

학교에 다니면서 좋았던점은 무엇인가요?

저는 원래 세끼를 다 안 먹는 스타일인데, 학교에 오
고나서 밥을 여기서 다 먹다보니까 세끼를 다먹게 되
더라고요.그것도 맛있게! 그래서 더 건강해진 느낌이
예요.

그럼 불편했던점은 무엇인가요?

저는 처음에는 제가 살던곳 보다 교통이 잘 안되있
어서 불편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더 많이 걷게되서
더 좋은거 같아요. 걸으니까 주위도 많이 둘러보게되
서 뭔가 자연과 하나가된 느낌?이 들어서 요즘은 산책
을 많이 다녀요. 생태화장실도 처음엔 냄새 때문에 불
편했어요.근데 지금은 적응돼서 오히려 더 좋다는 생
각이 들어요.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포부!!

전 제가 여기에 온 이상 많이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
기 때문에 잘 배워서 부지런하고 기쁨을 줄 수 있는 사
람이 될수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엄마 같은 마음으로 저희를 생각해주는 신화쌤
의 마음에 저 또한 따듯해졌습니다. 저희에게 맛입
는 밥을 해주시느라 항상 고생하시는 신화쌤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식단도 기대해할게요!! 인터
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오늘은 내가 한끼대접 요리사~

이성민 기자(3학년)

깊고 깊은 산골짜기 제천간디학교에서는 조리사선생님들이 매일 삼시세끼 학생들의 밥을 챙겨주신답니다. 안돼요 안돼, 이젠 저희가 해볼게요! 선생님들의 수고를 덜어드리기 위해 제천간디학교학생들이 나섰죠. 이름하여 ‘한끼대접’ !!! 올해 초부터 시작된 한끼대접은 반별로 학기마다 한번 씩 100인분의 식사를 준비해요. 메뉴도 직접 선정하기 때문에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매우 많습니다. 오늘은 쿵쿵쿵쿵 공룡반의 한끼대접!! 과연 어떤 요리를 만들까요?



요리를 시작하기 전 영양사 신화선생님께 안전과 조리 방법에 대한 설명을 꼭꼭 들어야 해요. 그래야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만들 수 있어요.



오늘의 메뉴는 잔치국수와 주먹밥이라고 해요! 벌써부터 군침이 도는 걸요? 식재료들과 인증샷을 찍어볼까요?
하나, 둘, 셋 찰각~



재료들을 씻고 썰고~ 본격적인 요리를 시작해 보아요!



잔치국수 고명들 중 제가 가장 중요하는 지단을 예쁘게 만들고 있어요. 꼬르륵... 어서 빨리 완성되었으면!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보면 어느새 잔치국수가 똑딱 완성되었어요! 정말 맛있겠는걸요?



저기보세요! 벌써 사람들이 줄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공용반의 잔치국수와 주먹밥을 맛볼 차례예요. 음~ 정말 맛있죠?



수고한 공용반에게 박수~ 잔치국수도 주먹밥도 모두 너무너무 맛있었어요! 앞으로 남은 한끼대접도 정말 기대돼요. 다음 주는 어떤 반에서 어떤 요리를 만들어 줄까요? 깊고 깊은 산골짜기 제천간디학교에서는 오늘도 복잡복작 맛있는 한끼대접 소리가 들려옵니다~

고독한 미식가

- 덕산편 -

이한결 기자(5학년), 권윤서 기자(3학년),

이성민 기자(3학년)

우리는 고독한 미식가들. 덕산의 맛집을 찾아 떠났다. 덕산의 많은 식당들 중 고르고 골라 3곳만 다녀왔다. 과연 이 중 인생맛집이 있을까? 추운 날씨에 잘 어울리는 추어탕, 떡만두국, 제육칼국수. 이 화려한 메뉴들 사이에서 최고가 누구일지 궁금하지 않은가? 빨리 첫 번째 식당 보러가지



제일 먼저 가본 곳은 넷가식당. 버스정류장에서 대림마트를 거쳐 오른쪽으로 쭉 가다 보면 성내리 마을회관 옆에 위치해있다. 길만 봐선 포장마차의 비주얼을 가졌군. 옆에는 분식도 파나본데, 한번 들어가볼까?

오호, 포장마차인줄 알았더니 내부는 아담한 식당인걸. 어디 한번 앉아볼까. 얼굴이 벌게져 술을 드신 마을 어른들이 앞에 앉아있고 뒤에는 학생들이 밥을 먹고 있다. 혼밥하기 좋지 못한 상황이지만 당황하지 않고 메뉴판을 응시하자. 음... 메뉴를 보니

찌개류의 음식들과, 미니족발, 미꾸라지 튀김이군. 2인 이상 먹을 수 있는 메뉴가 주를 이루다 보니 나 같은 고독한 미식가에게 남은 게 몇 없다. 그래, 추어탕을 먹어보자.

“사장님~ 여기 추어탕 한 그릇 주세요!”

“추어탕? 학생이 추어탕 먹을 줄 알아?”

추어탕을 먹을 줄 아냐고? 나를 알아보는 건가. 나를 시험하다니, 고독한 미식가의 명예를 걸고 곳곳이 추어탕을 시켰다. 먼저 나온건 5가지의 밑반찬. 콩조림, 묵무침, 김치 등 보편적인 식당 밑반찬이다. 특이한건 바로 브로콜리 튀김. 한번 먹어볼까. 음... 튀김지 조금 오래된 것 같군. 바삭바삭하기 보단 살짝 기름에 절어 눅눅한 느낌인걸. 눅눅한 튀김도 좋아하는 나로서는 꽤 괜찮은 반찬이지만 이 튀김에 대한 뒷 테이블 학생들의 혹평이 들려온다. 호불호가

꽤 갈리나 보다.



드디어 나온 추어탕. 미꾸라지를 통으로 삶고 국물이 빨간 중부지방 추어탕과 다른 남부지방 스타일의 추어탕이다. 길만 보기엔 미꾸라지를 갈아 넣은 국물, 우거지, 부추, 들깨가 끝이다. 심플하다. 자 한번 먹어볼까.

음... 꽤 괜찮은 걸. 기본에 충실한 맛이다. 조미료 천지인 덕산면 식당 중에서 꽤 괜찮은 국물이군. 부담스럽지도 않고 그렇다고 심심하지도 않다. 밥과 함께 먹어볼까. 밥과 국물은 말아먹지 않고 '적서' 먹어야 되는게 내 신념이다. 국물을 한술 떠 공기밥에 적서 갓 김장한 듯한 김치와 함께 먹는다. 이거이거, 밥이 쓱쓱 넘어가는구만. 온 몸이 따뜻해지는게 오늘 같이 추운 날 먹기에는 제격이다. 어른들이 찾는 이유가 이거였군. 어느새 밥 두 공기를 비우고 정신을 차렸다. 그러자 들려오는 사장님의 말씀.

“아유~ 추어탕 먹을 줄 아나 했는데, 잘 먹는구나. 다시 보니까 얼굴도 잘생겼네”

그렇다. 추어탕을 잘 먹으면 얼굴이 잘생겨진다. 짐을 싸고 계산을 하려 했지만 사장님이 안게서 밥을 먹고 있던 아저씨가 대신 거스름돈을 챙겨주셨다.

이것이 시골인심. 덕산은 살 만한 곳이구나. 아, 참고로 가게를 나서기 전 자판기 커피가 깨알같이 준비되어 있다. 인스턴트 커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한잔 하고 가시길. 그럼 이제 다음 식당으로 가볼까.



두 번째로 도착한 대풍식당. 대림마트 근처에 위치해있는 이곳은 제천간디학교 학생들에게도 맛있기로 유명하다. 복도식 입구를 지나면 넓은 마당과 부엌, 방들이 나온다. 이미 덕산 맛집으로 소문이 자자한 이곳에는 사람들이 북적거린다. 방에 들어가니 어르신들이 많고 8인용 책상이 주를 이뤄 혼잡하기에는 조금 부끄럽군. 하지만 이미 들어온 거니 가장 베이직한 떡만두국 하나를 시키도록하지. 이 곳 떡만두국이 맛있기로 유명하다던데... 기대되는군.

밀반찬이 나오기까지 16분. 옆에 아저씨들은 욕을 하며 싸우고 있고 옆옆 테이블 부부분은 다정하게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 뽕즙함이 최고를 달릴 때쯤 무심하게 사장님이 들어오셔서 밀반찬들을 던져주고 가신다. 단무지, 김치와 각종 소스로 구성된 심플한 밀반찬이다. 먼저 김치를 먹어볼까? 음 너무 익었는지 신맛이 강하고 밋밋하군. 단무지는 평범해. 그냥 일반 단무지인 듯 하다. 소스도 그럭저럭

맛있다.

드르륵



마침 떡만두국이 나왔다. 비주얼은 완벽하다. 김가루와 깨가 올려져 있는 비주얼에 보기만해도 침이 고이는걸. 양도 엄청나게 많아보인다. 마치 2인분 같은 1인분이야. 후 다 먹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되는군. 일단 시작해볼까나. 먼저 국물을 마셔보지. 음 적당히 심심하고 맛있다. 후추맛이 세계 느껴지는군. 옆 테이블 부부분은 저번만큼 국물 맛이 진하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다. 여기서 더 진하면 얼마나 진한 것인가. 나에게도 지금도 충분히 진하다. 이번에는 떡과 계란도 함께 먹어보지. 오 계란의 부드러움과 떡의 쫄깃함! 이걸 혁명이다. 떡은 얇은 편이군. 그래서 그런지 쫄득쫄득하게 붙어있다. 계란은 부드럽고 국물과 조화가 엄청나다. 질릴 때쯤 단무지까지 먹으면, 완벽하군.

다음은 만두. 사장님이 직접 빚은 것처럼 보이는 크기가 큰 만두였다. 보고만 있어도 행복해지는 크기랄까. 김치만두인가? 만두소가 빨간색이다. 만두피는 적당히 얇고 점성도 적당해. 딱 좋군. 만두소는 두부와 고기 조금, 당면, 각종 야채들로 이루어져 있다. 한국식 만두는 아닌 거 같군. 어쨌든

맛있다. 정신없이 먹다보니 거의 다 먹었군. 만두와 떡과 따뜻한 국물이 찰떡궁합이어서인지 고개 들 틈 없이 먹었다. 밥 생각이 나는군. 남아있는 국물에 밥까지 비벼서 먹으면... 상상만으로도 행복하군. 다음에는 공기밥 추가를 꼭 기억해야겠다. 어느새 옆에 있던 손님들도 다 나갔다. 마지막으로 국물 한 모금 마시고 나가야겠다. 음 역시 완벽해.

국물까지 다 마시니 온 몸이 따뜻해졌다. 후 이제 계산을 하고 나가볼까나. 사장님은 계속 부엌에서 일하고 계신다. 조심스레 계산을 부탁드리자 무심한 얼굴로 영수증과 돈을 거슬러주신다. 거스름돈과 영수증을 챙겨 밖으로 나오니 차가운 공기가 훑 몰아쳐 온다. 으 춥군. 그럼 빨리 다음 식당으로 가볼까.



마지막 식당은 통큰식당. 제천간디학교 학생들이 사이에서 꽤나 유명한 식당이다. 가게 내부는 생각보다 좁았다. 들어서자마자 미주한 땀 뚫린 주방. 음음 조리과정을 지켜볼 수 있으니 믿고 먹을 수 있겠군. 입식과 좌식의자가 있었다. 한국인은 역시 좌식이지. 망설임 없이 방석을 깔고 자리에 앉았다.

메뉴판을 살펴볼까. 바지락칼국수, 얼큰제육칼국수, 들깨칼국수... 칼국수 종류가 무척 많다. 냉면과 만두,

김밥도 있다. 아, 공기밥은 현금시 공짜란다. 가격은 대부분 6,000원으로 매우 저렴한 편이다. 어디선가 통큰식당은 제육칼국수가 맛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제육칼국수만 먹기엔 조금 아쉬울 것 같아 왕만두도 같이 주문했다. 직접 반죽하고 숙성시킨 생면으로 바로 조리한다니 맛이 궁금해진다.

식사 전 손을 비우고 손을 깨끗이 하는 것은 필수 중 필수!

“혹시 여기 화장실이 어디예요?”

식당내부에는 화장실이 없는 관계로 맞은편 농협 옆에 있는 공용 화장실을 이용해야했다. 추운날씨에 화장실까지 다녀오는 건 참 힘든 일이다.



드디어 요리가 나왔다. 주문한지 10분이 조금 안된 것 같다. 이제 본격적인 식사를 해볼까. 새빨간 국물에 얼큰한 냄새가 풍겨온다. 벌써부터 군침이 돌기 시작한다. 6,000원이라는 가격에 전혀 걸맞지 않은 비주얼이다. 큰 그릇에도 넘칠 것 같은 양과 (1인분이 맞는지 의심이 될 정도이다) 그 위 소복이 쌓여있는 제육은 끝이 보이지 않는다. 무엇보다 칼국수에 숙주라니... 정말 환상의 조합이다. 밑반찬은 김치와 단무지로 어찌면 초라해 보일 정도로 간단했지만, 아무렴 어떠랴 내 눈엔 오직 제육칼국수밖에 보이지 않았다.

깊은 맛이다. 얼큰 칼칼한 만큼 고춧가루가 정말 많다. 면은 약간 붙어있는 상태였지만 제육과 먹으니 누구라도 반할 수밖에 없는 맛이다. 방금 막 나온 뜨끈한 왕만두를 칼국수에 푹 찍어 한입. 아아... 왕만두가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었다. 입에 묻는 것도 알아채지 못하고 나의 온 정신은 칼국수에 집중되어있었다. 숙주와 제육과 칼국수면의 비율을 잘 맞춰 한 젓가락. 추운 겨울에 피로가 한 순간에 풀리는 느낌이다.

식당이름에 걸 맞는 양이다. 사장님 통이 너무 크다. 한 사람이 먹기엔 조금 버거운 양. 더군다나 왕만두까지 시켰으니. 옆 테이블의 아저씨 두 분도 제육칼국수를 주문하셨다. 여긴 소문대로 제육칼국수가 베스트셀러인가 보다. 밥을 말아먹으면 정말 맛있을 것 같은 국물이지만, 뱃속에 더 이상 들어갈 자리가 없어 아쉽게 포기했다.

이렇게 푸짐하게 먹었는데 단돈 만원 밖에 들지 않았다. 덕산 시외버스정류장과도 가깝고 음식이 나오는 시간도 빠르고, 무엇보다 가성비 갑인 통큰식당! 지금까지 왜 여길 몰랐는지 의문이다. 휴일 없이 아침부터 영업하신다고 한다. 과연 덕산에 통큰식당을 이길 자가 있을까.

아... 세 그릇이나 먹었더니 배가 터질 거 같군. 푸짐한 덕산 인심 덕분에 많이 먹었더니 움직이질 못하겠다. 역시 추어탕, 떡만두국, 제육칼국수 모두 맛있었어. 추운 날에 뜨끈한 국물을 먹었더니 정말 행복한걸. 어어 벌써 971번 버스가 오다니. 빨리 가야겠군. 모두들 덕산 식당에 나들이 많이 오도록. 그럼 모두가 고독한 미식가가 되는 날까지~ 안녕.

아시나요? 우리상회

입니카

언제 개업하셨나요?

언제 개업했는지 모르고 했어. 한 27년, 28년정도 됐지.

덕산에 어떻게 오시게 되었나요?

신랑따라왔지. 남편이 풍수잡한테 아파서 요양차 덕산으로 왔어.

제천간디학교 학생 중 기억에 남은 학생이 있나요?

전에 물건 톰지던 애들이랑 졸업할때 사진 찍어달라고 학생이 기억에 남아있어.

학생들이 매점에서 얼마정도 사용하나요?

아이스크림 한두개정도 사고 요즘은 라면이나 과자도 많이 사는것 같아. 평관적으로 1000원에서 2000원 정도.

제천간디학교가 어떤 곳인지 아시나요?

비인가 대학이지. 국가에서 인가 안 받은 학교.

신제품이 들어오는 요일이 있을까요?

과자는 매주 화요일에 들어오고 매주 수요일이나 토요일에 들어와

아녀

니오



다 때려 박아! 디폴스!

김서준 기자(2학년)

제천 간디의 랩스타! 이 단어만 들어도 누군지 알 것 같다고요? 네, 여러분이 예상했던데로 이번 화제의 인물 주인공은 '디폴스'입니다. 디폴스는 2018 가을축제¹⁾ 때를 데뷔로 지금까지 계속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크루인데요. 멤버로는 김담(4학년), 김재하(4학년), 전현호(3학년)가(이) 있습니다. 힙합과 그 문화에 대한 소신있는 생각들과 디폴스만의 재밌는 이야기들, 지금 바로 보러 가실까요?

♥ 자기소개와 함께 디폴스 그룹소개 부탁드립니다.

재하: 4학년 김재하이고, 디폴스에서 비주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현호: 3학년 전현호이고, 디폴스에서 주전자를 맡고있습니다.

담: 디폴스 크루의 대표 4학년 김담이고, 디폴스의 총괄을 합니다. 디폴스는 종합창작예술집단인데, 간디학교에 있는 예술가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재하: 와 존X 거창하게 지어놨네.

♥ 디폴스가 결성된 계기를 들려주세요.

현호: 가을축제 때 '랩을 하자.' 라는 생각이 들었고, 학교에서 랩 하는 사람들을 다 끌어모았더니 이렇게 3명이어서 크루를 결성했고, 만든 크루가

공연을 하고 나니까

재하: (치고 들어오며)엄청 떴지, 잘생긴 사람 셋이서 하니까 난리 난거지.

현호: 사람들 반응이 '학교 내에서 싸인을 받을 정도로 할 수 있겠다.' 싶어서 계속 유지하게 되었어요.

♥ 랩을 시작하게 된 계기나 이유가 있다면?

현호: <쇼미 더 머니 4²⁾>에 나오는 노래를 듣고 따라 부르다가 랩에 재미를 느껴서 다른 랩을 더 찾아보게 됐고, 그러다가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재하: 저희가 1학년 때 '식스맨' 이라는 15학년 밴드에서 저랑 마루랑 담이를 보컬로 <MONEY FLOW>랑 <다 비켜봐>라는 랩을 했는데 그 공연을 보고 평정위가 저랑 담이를 불러서 만든 노래가

1) 매년 가을마다 5학년들이 주체적으로 여는 행사 공연, 참여 부스, 행사 부스 등이 있고, 학부모, 학생, 외부인 다 참여할 수 있다.

〈PEACE〉였고, 그 후로 계속 랩을 하게 되었어요.

답: 저도 재하랑 똑같아요.

♥ 자작곡 소개 부탁드립니다.

재하: 〈PEACE〉 비트를 만들어준 한울이 형(14학년)이 한번 더 비트를 만들어줬고, 노래 제목은 〈intro〉예요.

답: 가사에는 ‘평화’ 라는 주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담으려고 노력했어요.

♥ intro는 도입부라는 뜻인데 intro가 제목인 이유는?

답: 디폴스의 본격적인 시작이 아니라 언젠가는 더 많아진 멤버들로 앨범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디폴스라는 이름이 시작되는 노래다.’ 라고 해서 intro라는 제목을 짓게 되었어요.

♥ 가사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재하: 〈PEACE〉 때 보다 지금이 더 성숙해지고, 생각도 많아졌고, 2학년 때랑은 다르게 성장했다. 라는 얘기를 담았어요.

답: 저는 평화랑 사랑을 내 안에 담아두고 싶다는 내용이고, 사랑과 평화가 있으므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 또는 내가 유지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내용을 담았어요.

♥ 존경하는 아티스트나 영감을 받았던 아티스트가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답: 저스디스와 팔로알토라는 래퍼 둘이서 낸

〈FOUR THE YOUTH〉라는 앨범을 추천드려요.

이유는 이번에 제가 썼던 가사와 비슷하게 사랑과 평화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담은 앨범이고, 두 래퍼의 나이차에서 나타나는 차이점을 느끼는게 굉장히 재밌어요. 수록곡도 22곡이나 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다 듣고나면 영화 한 편을 본 느낌이에요. 트랙리스트가 굉장히 잘 짜여져 있어서 듣고 나면 많은 생각이 들게 하는 앨범이에요.

현호: 창모라고, 피아노를 치면서 랩을 하는게 굉장히 어려운데 그걸 자연스럽게 잘하고, 무엇보다 피아노를 치고 랩을 할 때 엄청 섹시해요. 볼 때마다 존경스럽고 진짜 닳고 싶어요.

재하: 빈첸이라고 〈고등래퍼 2〉에 나왔던 래퍼가 있는데 빈첸이 쓰는 가사가 대부분 자신의 이름이나 감정의 굴곡, 삶의 밑바닥에 대한 내용인데 저는 들으면서 많이 위안을 얻었던 곡들이예요. 콘서트 때마다 빈첸이 항상 우는데 자기 노래를 부를 때마다 그 시절의 감정이 그대로 묻어나는 래퍼가 몇 안된다고 생각해서 빈첸을 존경해요.

♥ 〈쇼미 더 머니〉(이하 쇼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재하: 누구나 들으면 알만한 래퍼들처럼 잘 하는데도 안 알 려진 래퍼들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쇼미를 통해서 자기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방송이 끝나고 나오는 래퍼들의 가사를 보면 대중들의 압박이 심한 것 같아서 정신상태에는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아요.

답: 랩을 하는 입장에서 말하자면 저는 굉장히 좋은

2) 2012년도에 시즌 1부터 시작해 현재까지 트리플 세븐까지 나온 한국 힙합 서바이벌 시리즈이다. 한국에서 힙합을 대중문화로 끌어올린 주요 장치이다.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요. 방송을 통해서 뜰 수 있고, 방송을 이용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 힘으로 뜬 사람들은 '나는 방송 없이도 뜰 수 있다.' 라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잖아요. 하지만 쇼미는 정말 많은 래퍼들이 참가하지만 소수의 사람들이 뜨기 위해서 다수가 장판이 되요. 제가 만약에 나간다면 한 순간에 시청률로 소비되는 사람이 될까봐 두려운 건 있어요.

♥ 〈쇼미 더 머니〉를 나갈 생각이 있나요?

재하: 저는 아직 랩을 친구들과 같이 하는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어서 랩이 제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된다면 나갈 것 같아요.

현호: 저는 안 나가요. 절대로. 솔직히 말하면 제가 무대 공포증이 있어서 무대에 올라가면 숨이 턱 끝까지 차가지고 가끔씩 토할 것 같아요. 지금 학교 사람 100명 앞에서 이런데 쇼미를 나가면 백단위는 가뿐하게 넘어버리니깐, 나간다해도 떨려서 못할 것 같아요.

담: 방송만 생각하면 너무 나가고 싶어요. 멋진 무대 당연히 서보고 싶고, 유명한 프로듀서들한테 비트도 받아보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만약 잘 돼서 인기가 생겼고, 저를 기다려주는 사람들이 생겼을 때, 당장 제가 음악을 계속 할 수 있는 확신이 없으니까... 제가 계속 음악을 할 거라면 저는 나가고 싶어요.

♥ 디스 배틀³⁾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재하: 전 싫어요. 보는 사람들은 진짜 재밌지만 굳이 부추길 필요가 있나 싶어요. 싸울거면 자기들끼리 싸우겠지, 굳이 악감정도 없는 사람들끼리 '상대의 약점을 찾아서 공격해라.' 이진 되게 안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현호: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애들끼리 장난을 쳐도 애가 진심이구나 아니구나라를 아는 듯이 디스배틀도 똑같은 것 같아요. 누가 더 재치있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디스를 하느냐만 봤으면 좋겠어요.

담: 한국의 디스문화는 아직 선택의 기류 위에 있다고 생각해요. 쇼미에서 비춰지는 디스의 경우는 장난도 있고, 굉장히 진지하게 하는 래퍼들도 있어요. 하지만 쇼미는 디스를 시청률을 위해서만 이용하잖아요. 그러다보니 디스란 문화 자체가 굉장히 가벼워졌다고 생각해요. 디스가 쇼미에서만 이뤄지면 상관없지만 실제로 '재가 너무 싫어, 재를 죽이고 싶어. 그래서 나는 너를 랩으로 존X 깔 거야.' 라는 마음으로 디스를 했을 때 쇼미를 본 사람들이 그 디스를 보고 진지하게 받아들일까? 라는 생각은 해요. 더 이상 한국에서의 디스 자체가 '가볍고 단순히 재미로만 치부될 수 있겠구나.' 라는 걱정이 있어요.

♥ 대부분의 힙합 가사들은 돈, 여자, 차 자랑들이 많은데 이런 가사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재하: 저희 또래들이 들었을 때 영향을 좋게 받을 것 같지는 않은데 제가 도끼같은 삶을 살았으면 지금의 도끼보다 더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엄청 노력해서 존X 댄는데 그걸 혼자만 알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담: 저는 자랑하는 건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런 가사들이 너무 흔해지니까 진짜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재가 '야, 나 돈 겁나 많아.' 이러면 너도 '아, 애돈데. 너도냐?' 같은 느낌이랄까. 개개인으론 정말 멋지지만 래퍼의 이미지가 돈 많고,

차 좋은 거 타고 다니는 이미지로만 박힌다는 건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현호: 아무 상관 없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쓰고 싶으면 쓰고, 안 쓰고 싶으면 안 쓰는거지.

담: 너무 많아지면 알아서 없어질걸? 왜냐면 돈 자랑 자체가 요즘 딱히 멋이 없는게잖아.

재하: 다르게 나오겠지.

♥ 무대할 때 제스처는 따로 연습을 하는지, 한다면 어떻게 하나요?

담: 다른 래퍼들 무대 영상을 보다가 멋있는 제스처들이 대충 따와서 무대에서 하는거지, 따로 연습을 하지는 않아요.

재하: 저는 무대에서 제 모습이 안 보이니까 무대에서 제스처를 하면서 ‘나 지금 존X 멋있다.’ 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공연 영상을 보면 호두껍이 인형이 움직이는 거 같더라고요(웃음), 그래서 요새 제스처 연습을 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요.

♥ 지금까지 공연했던 곡들 중에 제일 마음에 들었던 곡은?

현호: 범퍼카!

재하: 나도. 후 파트를 배정받고 굉장히 낙심해 있었는데 이게 가사를 외울 필요가 없어요. 머리도 안 복잡하고, 그냥 “끄아아아아아!!” 하고 소리 지르면 돼서 제가 온전히 즐긴 무대는 범퍼카예요.

담: 나는 〈intro〉

재하: 나에겐 지옥이자 악몽이야. 저는 맨날 절었어요.

담: 자작곡을 하는게 재미는 없을지 몰라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뿌듯하고, 커버와는 확실히 다른 느낌이에요.

♥ 팀워크 확인을 위한 이구동성 게임!

란강팍 vs 디폴스

재하: 란강팍!

현호: 디폴스!

재하: 사실 이거는 우리가 질문을 미리 보고 짜냈어.

사랑 vs 우정

다같이: 사랑

담: 우정보다는 사랑이지.

기자: 그럼 이 셋의 우정이 다 깨져도 돼?

재하: 근데 우리의 사랑이 깨져도 안되잖아.

담: 사랑이 깨지면 우정을 유지하기 힘들잖아.

재하: 결론은 우리가 돌아가는 원동력은 사랑이다, 사랑이 있어야 우리가 랩을 할 수 있고, 사랑이 되어 모든게 다 될 수 있으니까

윙크 vs 혀

재하: 거기서 거기야.

담: 윙크는 제가 해명을 해야 돼요. 가을축제 때 있었는데 제가 5학년 누나들 쪽을 보고 윙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돌려봤더니 그냥 웃는거예요, 그냥 웃는데 찡그리면서 웃어서 한 쪽 눈이 감겨서 윙크를 한 것처럼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전 윙크를 한 게 아니에요. 전 그런거 안 합니다.

♥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현호: 딱히 없는데... 아 가사 쓰기 싫다.

재하: 보니까 저희가 학교에서 영향력이 있다는 걸

3) 주로 힙합 에서 랩을 통해 특정 대상을 비난 혹은 비판하는 행위. (출처:나무위키)

인정하기 싫은 사람들이 있어요.

담: 저희가 받는 불리한 조건이 있어요. 항상

재하: 랩이란 장르 자체에 값을 낮게 매기는 걸 수도 있고, 우리가 잘 되는데 보기 싫어서 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저희 좀 많이 사랑해주세요♥

담: 안녕하세요. 저는 디폴스의 사장 김담 혹은 still-p입니다(웃음). 올해 말 즈음에 위에서 말했던 <intro>가 수록된 미니앨범이 나올 예정이니까 많이 들어주세요.

인터뷰는 재미있으셨나요? 기자 또한 관심있는 분야를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인터뷰 할 수 있었어서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곧 나올 김담의 미니앨범과 함께 앞으로 디폴스 크루의 행보를 기대해주시고 응원해주세요!

플레이리스트 (담-현호-재하 순)

죽기 전에 공연해 보고 싶은 곡

재지팩트-하루종일 / 아름다워 Live- 창모 / 빈첸-별(Feat. 김중완 of 넬)

‘랩을 하고 싶다.’ 라고 느끼게 해준 노래

저스디스- Welcome to My Home / OKEY DOEKY-지코, MINO / 빈첸-필요도

자신의 인생곡

저스디스&팔로알토-Seoul Romance / Up-Sing Street / Not Nice-Chris Gameau

연인과 듣기 좋은 노래

기리보이-하루종일 (Feat. DJ SQ, 한요한) / 폴킴-모든 날, 모든 순간 / 그린내-실리카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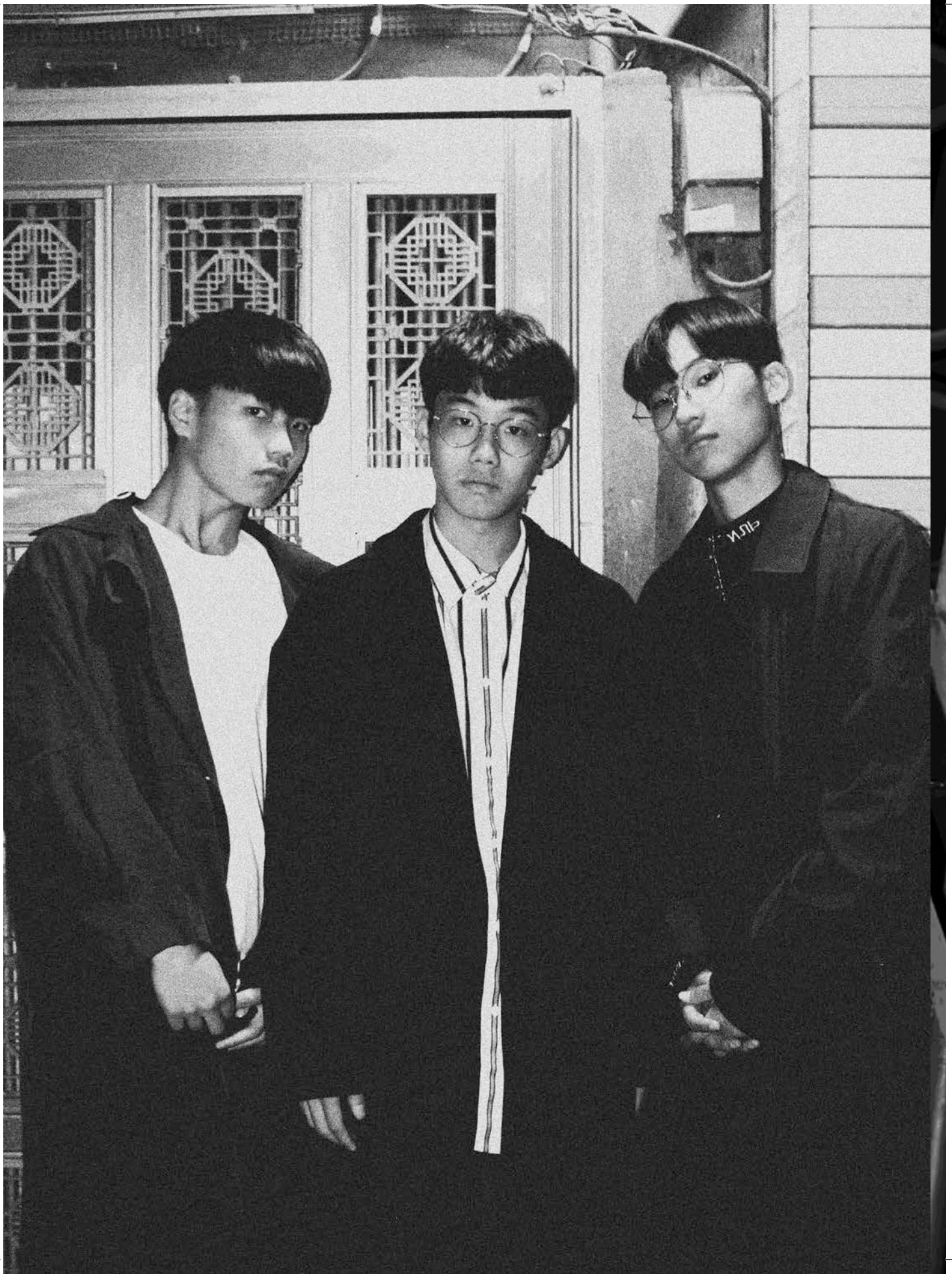
자신이 이별을 했다면 들을 것 같은 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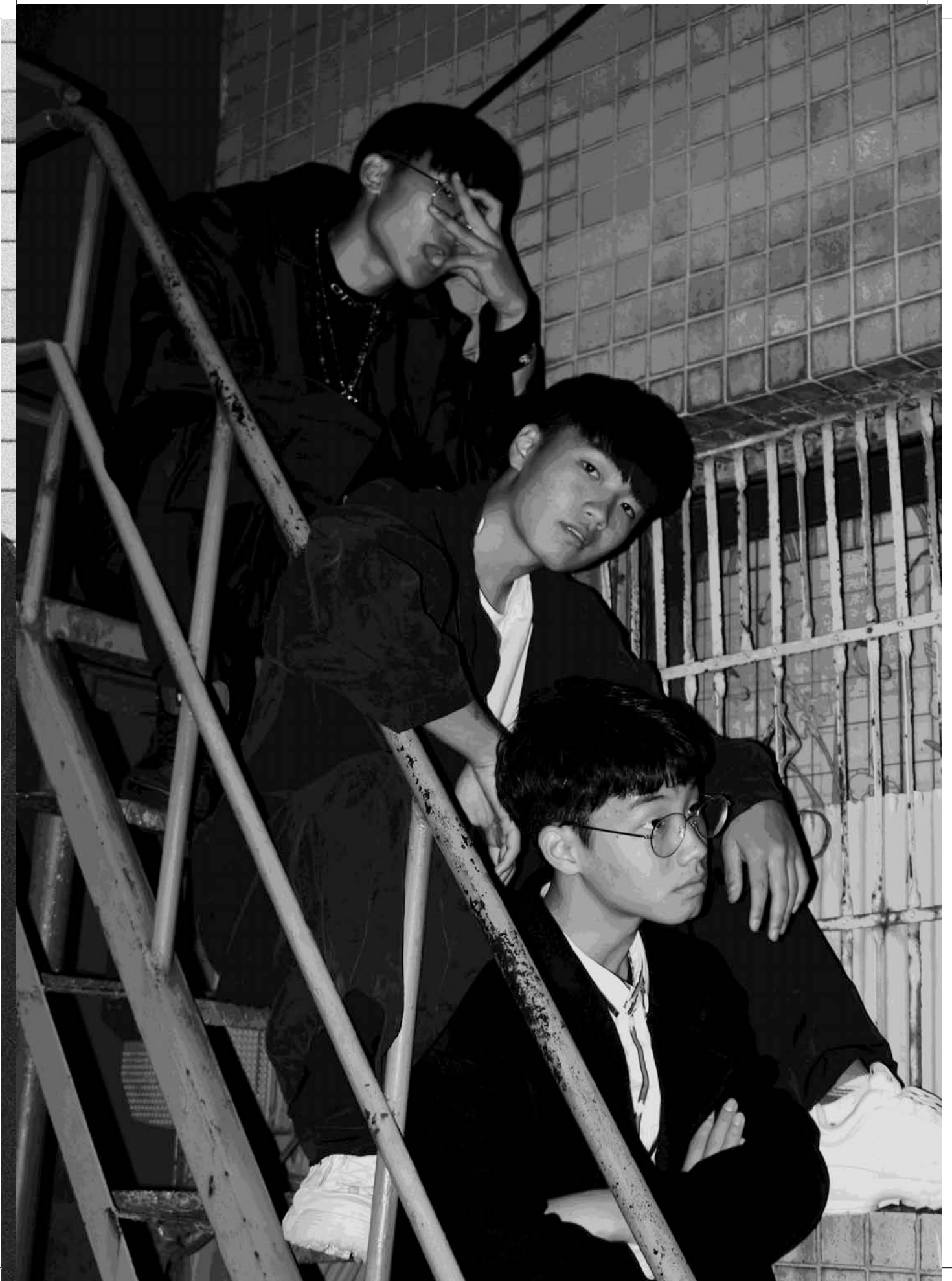
소마-고마워 / 오반-불행 / 언니네 이발관-애도

제스처 연습할 때 듣는 노래

Lil pump-Esskeetit / 식케이, pH-1, 박재범-iffy(Prod. GroovyRoom) / DJ Khaled-Don't Quit(Feat. Treavis scott & Jeremi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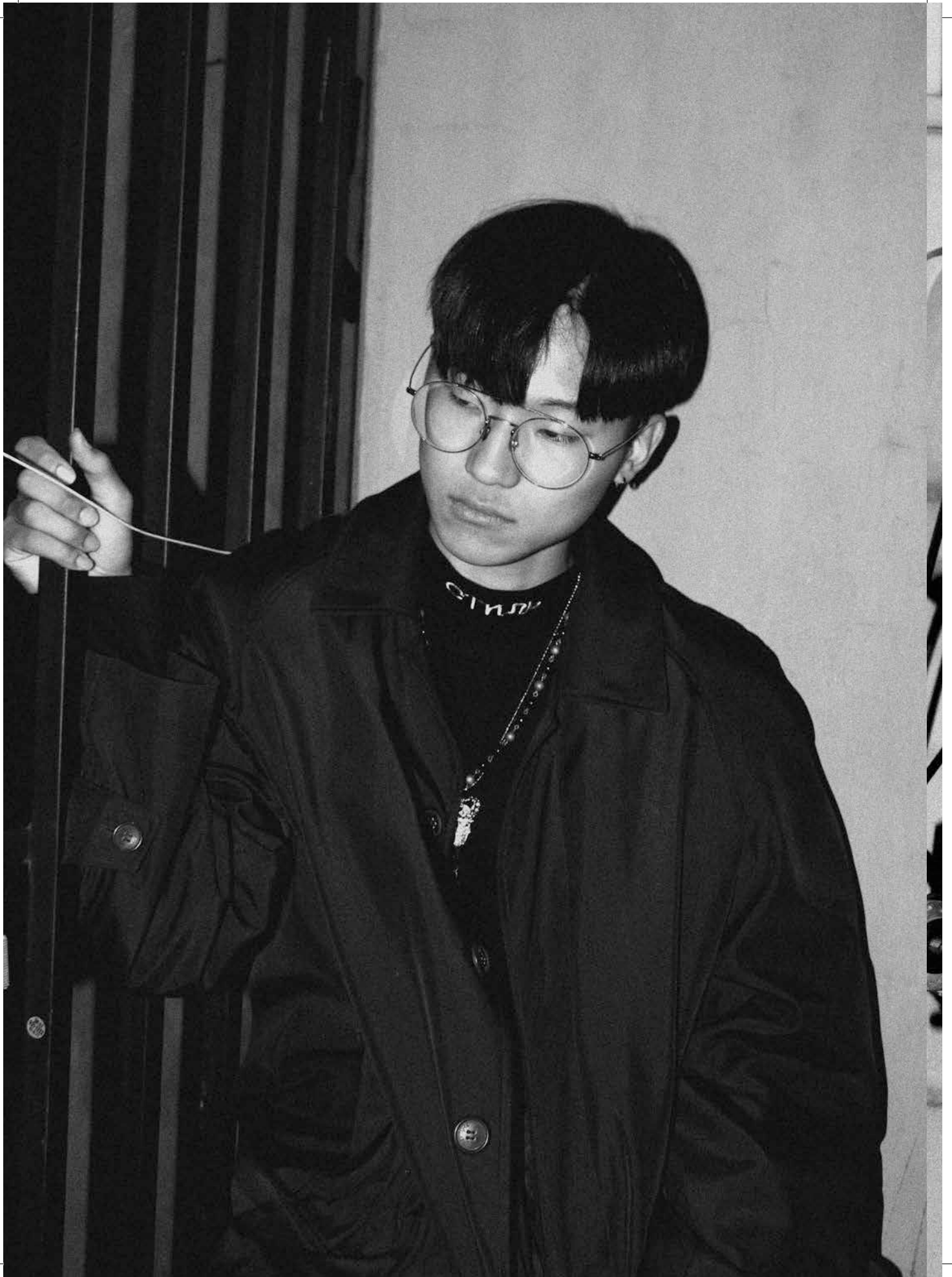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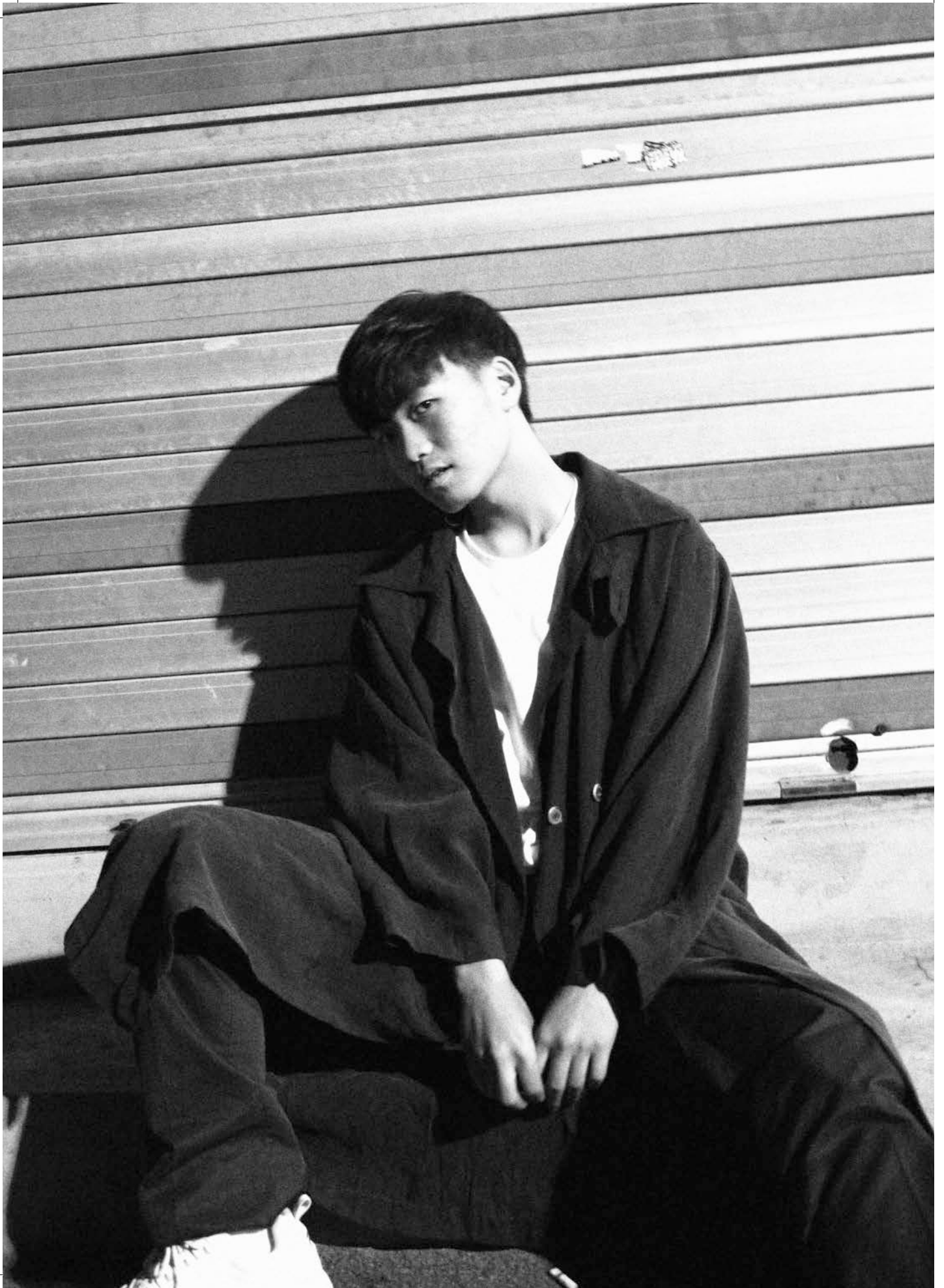














풀무질에 어서 오세요-!

윤수민 기자(4학년)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쯤 가보셨을 책방. 최근 책방은 각종 대형 서점, 인터넷서점 등등의 의해 일부러 찾아야 겨우 찾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수가 적어졌습니다.

10학번 은형근 졸업생의 학부모이신 은종복 후원인님이 운영해 오신 인문 사회과학 책방 풀무질은 그 이름부터도 뜻 깊습니다. 왜 뜻 깊은지, 책방 풀무질 일꾼 은종복님은 어떤 분이신지 궁금하시다면-! 지금 만나보시죠!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은종복 이고요, 책방풀무질 일꾼이고 1993년 4

월1일 만우절 날 시작해서 지금까지 25년째 일하고 있어요. 이 책방은 1985년도에 처음 문을 열었고 33년 됐어요. 그때는 대학 앞에 인문사회과학책방이 많이 있었지만 지금은 풀무질 빼고 다 문을 닫았어요.

자녀가 졸업을 했는데도 저희 학교에 후원을 해주시는 이유가 뭔가요?

아마 형근이¹⁾가 제천간디학교에 다니지 않았어도 제천간디학교의 뜻을 알면 후원을 했을거예요.(웃음) 제천간디학교의 뜻을 두 가지만 얘기하자면 첫 번째는 내 목숨이 귀하면 다른이 목숨도 귀하다는 뜻을 품고 있고, 두 번째는 스스로 먹을거리, 입을 거리, 잠잘 거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하잖아요, 학교에 형근이가 들어가고 나서 그 뜻을 더 확실히 알게 됐고, 한 달에 만원이지만 후원을 하고 있어요. 더 많이 해야 하는

1) 은종복님은 '은형근' 졸업생 학부모님이십니다.

데 책방도 힘들어요.(웃음)

책방 이름은 왜 풀무질인가요?

성균관 대학교 신문방송학과 학회질 이름이 풀무질이었고, 풀무질이라는 소식지를 만들었는데 그 때는 전두환 군사정권이 광주사람들을 많이 죽이고 정권을 탈취했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정권, 잘못된 정의의 맞바람을 일으키겠다! 불바람을 일으키겠다! 라는 뜻으로 풀무질이라고 지었다고 해요. 하지만 지금 책방풀무질이 그런 뜻을 이어가고 있는지는 확답을 못 주겠네요. (웃음) 우리 책방 풀무질의 책 대부분이 인문 사회과학 책들이긴 한데 실제로 많이 팔리는 책은 변호사 시험, 행정고시, 공인회계사 책들의 매출이 크거든요. 이런 책들이 아까 얘기했던 풀무질의 뜻을 온전히 이어간다고 볼 순 없죠.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책방에는 주로 어떤 분들이 오시나요?

열이면 아홉이 성균관대학교 학생들이죠. 학생의 반

은 고급공무원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나머지는 인문사회과학 공부 하는 사람들과 책방에 관심이 있어서 일부러 찾아오는 사람들이예요.

책방 운영하시면서 힘든 부분이 있나요?

세 가지만 얘기하면 제가 책방을 처음 했을 때에는 책방이었어요. 책 읽는 것을 좋아하는 제가 도서관처럼 이용하고 책을 팔면서 생계도 이을 수 있는 곳이었어요. 하지만 좀 지나니까 책을 잘 팔아가지 생계를 이을 수 있는 책 가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책이 잘 팔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다가 대학교재나 수험서를 팔게 됐어요.

두 번째 힘든 것은 사람과의 관계죠. 어느 서비스업이나 마찬가지로 책방엔 여러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런데 나를 보고 책을 더 사러 오거나 놀러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나 때문에 책방을 떠나가는 사람들도 있죠. 나의 행동이 맘에 안 든다거나 여기 있는 책들이 마음에 안 들거나... 요즘 사람들은 가볍고 재밌는 책을



찾거든요. 그런 책은 우리책방엔 드물거든요. 그런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떠나가면 좀 슬프죠.

마지막으로는 국가 정책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데 우리나라는 동네 작은 책방이 살 수 있는 구조가 못 돼요. 도서정가제²⁾를 취하지 않거든요. 많은 유럽나라들은 도서정가제로 책값도 싸고 이중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작가도 보호하고, 출판사도 지켜주는 정책인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죠. 한국은 헌책방 대신 알라딘 중고서점 이런 곳을 이용하지만 그런 것이 독립책방을 잠식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도서정책은 한마디로 짱이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하하

책방으로 개인무빙을 갔다 온 학생들이 책방이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다고 말하던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첫 번째는 시간, 두 번째는 성찰이에요. 첫 번째로 현재 대한민국은 책을 읽을 시간이 없어요. 많은 유럽나라에서는 오후 4시면 상가가 모두 문을 닫아요. 그래서 그 시간 이후에 같이 모임도 갖고 밥도 먹고 술도 마시고 그러는데 보통 우리나라 사람들은 빨라야 저녁 6시고 7시, 8시에 퇴근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면 책을 읽거나 자기 시간을 갖는 게 참 힘들어요. 책 읽을 시간이 부족하니까 당연히 책을 안사죠. 두 번째는 성찰을 말씀 드렸는데 책이라는 거는 이런 문자로 된 것도 책이지만 사람들과 얘기하는 것도 사람 책이잖아요. 생각하는 힘, 근데 그게 점점 사라지는 거죠. 받아들일 수 있는 감각도 필요하지만 어떤 일에 대해서 분석하고 감각적으로도 받아들이는 것이 스스로의 힘이

되는 게 생각하는 힘이거든요. 생각하며 걷는 것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나온 개개인의 생각을 개념화 시킨 게 책이죠. 성찰하는 삶을 나부터도 그렇고 요즘 사람들이 점점 하지 않기 때문에 책방이 힘들어진 것 같아요.

책방은 소량인 책을 어떤 식으로 받아오나요?

우리 책방은 책 받는 거는 아주 편해요. 책은 못 팔지만 오랫동안 하다보니까 직접 거래하는 출판사가 100 군데가 넘어요. 그래서 출판사들이 신간이 나오면 바로 다 보내줘요. 그렇게 들어오는 신간이 날마다 다섯 종류에서 많게는 열 종류고요. 그 방법이 아니면 신문책 광고를 보고 이 책은 책방에 갖춰 놓아야겠다. 하면 도매상을 통해서 주문해요. 또 다른 경우는 손님이 와서 어떤 책을 찾는데 그 책이 없으면 나중에 2권을 준비하는 거죠. 그 손님 1권 드리고 1권은 가지고 있다가 다 읽지는 못해도 한번 훑어보고 그 책 작가를 좋아하는 사람이 오면 추천해주고. 그런 식으로 책을 맞춰놓죠.

책방에 있는 책들은 다 읽어보셨어요?

우리가 새로 나온 책만 하루에 적게는 10종, 20종 넘게 들어오기 때문에 제목하고 작가하고 머리글 읽기도 힘들어요. 책방일이 책 읽는 일을 우선으로 해야 하는데, 책 정리도 해야 하고 주문도 해야 하고 다른 일이 많다보니까 책모임에서 읽는 책들도 다 읽기 버거워서 제가 읽고 싶은 책을 정작 잘 읽기 힘들어요. 내가 이려고 책방 했나?(웃음)

2) 도서정가제란?

서점들이 출판사가 정한 도서의 가격보다 싸게 팔 수 없도록 정부가 강제하는 제도. 책값의 과열 인하 경쟁에 따른 학술·문예 분야의 고급서적 출간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서점들이 출판사가 정한 도서의 가격대로 팔도록 정부가 강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문화상품 보호를 위해 출판사가 정한 도서의 가격보다 싸게 팔 수 없도록 하는 제도로, 2003년 2월부터 시행되었다. 이 제도가 된다면 독립서점들이 살 수 있다.

책방에서 모임도 하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진행하세요?

깊이 있게 하진 않아요. 우리는 항상 모이면 낮은 수준으로. 때에 따라 몇 명이 오는지도 달라져요. 같이 읽는 책을 안 읽었다고 해서 괴롭히거나 놀리거나 그러지 않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책모임하는 게 책을 읽고 나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고 그런 거창한 뜻을 갖지 않거든요. 책읽기 모임을 하면서 온 사람들끼리 눈빛을 교환하고 책 말고도 다른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누고 아픔을 나누고 기쁨을 함께 하기위해 하는 거죠. 모임을 하다보면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달라서 자기만의 생각과 관점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모임을 하면 되는데, 가끔 국가기관에서 지원하는 돈을 받을 때에는 보여주기 식 모임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건 무지 괴로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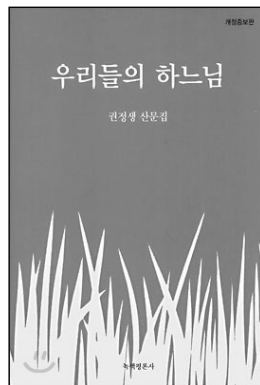
간디학교 학생들에게 추천해주고 싶은 책 3권은?

1. 고병권 - 생각한다는 것.



2. 권정생 - 우리들의 하느님.

권정생 하면 몽실언니 강아지똥을 쓴 분으로 알고 있을 텐데 이 선생님이



이런 산문도 쓰셨어요. 이 책 제목만 보고 기독교를 알리는 책 인줄 오해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이 책의 가치라는 건 아까 이야기했듯이 간디사상과 맞닿아 있어요. 내 목숨이 귀하면 다른 이의 목숨도 귀하대. 우리가 기름을 덜 쓰는 나라가 된다면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종속되는 삶을 벗어날 수 있다. 라는 내용이 부분 들어있어요.

3. 님 웨일스, 김산 - 아리랑(조선인 혁명가 김산의 불꽃같은 삶).

1930년대 '김산'이라는 독립운동가의 삶인데, 조선의 민족해방을 위해서 중국의 공산당에 들어가서 이름을 16번이나 바꿔가며 독립운동을 해 온 이야기예요. 잊혀 질 뻔 했지만 60년대 초에 일본서적으로 가까스로 발견이 되어서 이렇게 출판되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 분 말고도 잊혀진 독립운동가 분들이 많아요. 사실 이분들의 노고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거거든요. 꼭 읽고 기억해주면 좋겠어요.



기사에 다 넣진 못했지만 다양하고 많은 이야기 해주신 후원인 은종복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책방 풀무질 오래오래 이어가주세요!



농사 해서 뭐에 써

이재형 기자(5학년)

“학교 농사가 학생들에겐 어떤 것일까?” 노작의 날과 반별 농사, 농사 작업장까지, 학교생활에서 비중이 크지는 않지만 제천간디학교는 학교 밭이 있고, 모두가 농사를 하는 학교입니다. 그중 학생들이 가장 많이 농사를 접할 수 있는 반별 농사는 농사 계획을 세워 밭이나 교실에 작물을 심고, 물을 주고 관찰하고, 수확하여 먹는 것까지의 과정을 학생들 스스로 하는 활동인데요. “토마토와 루꼴라를 심고 키워 피자를 만들어 먹을 수 있다” 라는 이 말만 들으면 “재미있겠는걸” 생각이 들지만 반별 농사의 실상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지난 1학기 8개의 멘토반¹⁾과 5학년까지, 9개 반은 모두 자신들의 계획을 가지고 농사를 시작하였지만 1

학기 동안 9반 중 4반 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 5반 중 4반은 밭에 거의 가지도 않았죠. 재미있을 것



같은 학급별 농사가 많은 학생들에겐 재미있거나 의미 있는 것이 아닌 듯 보였습니다.

한 달에 딱 한 번 뿐인 ‘노작의 날’ 은 모든 학생들이 학교 밭에 모여 두 시간 정도 밭일을 하는 날입니다. 김매기를 하거나 농작물을 수확하기도 하죠. 지난 10월 노작의 날은 고개 숙여 풀을 뽑는 학생들 보다 일어서서 친구들과 노는 학생들이 더 많았습니다. 아마 힘들게 풀을 뽑던 학생들, 뽑지 않았던 학생들 모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이렇게까지 농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농사에 달린 열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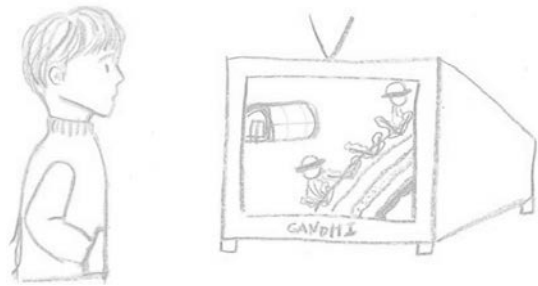
먼저, 우리학교가 농사를 짓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농사를 하도록 하는 이유를 말하죠. 선생님들께 들어보니 그 이유는 농사를 통해 얻거나 배울 수 있는 것이 다양하고 또 중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첫째로는 내가 살아가기 위해 꼭 필요한 ‘먹는 것’ 을 스스로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자신이 먹을 것을 키워보면서 말

1) 멘토반 : 2018 교육과정이 개편되면서 1~4학년이 섞여 8개의 멘토반으로 편성됨.

이죠. 물론, 마트의 자동문을 지나 일정하고 단정하게 진열되어 있는 채소, 과일을 집어 계산만 하면 되는 세상일 지라도 내가 먹고 있는 것이 어떻게 나오는 것이고, 나와야 하는지를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또, 해외의 농산물이 들어오고 채소값이 오르는 세상에서 먹을 것을 기르는 것은 농부에게만 필요한 능력은 아니니까요. 둘째로는 몸을 움직이는 노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보거나 듣거나 생각만 하는 것보다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은 훨씬 많고 깊다고 해요. 농사에 대한 것 뿐만 아니라 사람은 몸을 움직일 때 더욱 성장하거든요. 셋째는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예로부터 농촌에선 ‘뫼앗이’ 라는 걸 했대요. 농사는 혼자서 하기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죠. 함께 작물을 심고 키우고 일하고 수확하여 먹는 과정 동안 학생들은 ‘함께’ 의 힘과 중요성을 느낄 수 있어요. 또, 꾸준한 농사를 통해 농작물을 길러내면 기쁨과 성취감을 느낍니다. 농작물의 성장을 옆에서 지켜보고 자연을 만나는 시간도 많이지요. 이처럼 농사가 가지고 있는 가치들, 얻을 수 있는 것들은 참 많고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과연 이 가치들을 학생들도 품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학생들은 반별 농사와 노작을 하면서 ‘얻고, 배우고 있음’ 을 느낄까요?

84명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통해 물었습니다. “학교에서 농사를 하며 자신이 얻는 것, 도움이 되는 것이 있어?” 라고요. 84명의 학생 중에서 단 17명 만이 “그렇다” 고 했어요. 오히려 “그렇지 않다” 고 한 학생이 23명으로 더 많았고 나머지 학생 44명은 그 중간에 있었죠. 농사에 대해 좀 더 알고 잡초를 잘 뽑게 다는 학생들도 있었지만 많은 학생들이 도움이 되는 게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고 했고 농사에 대해서도 조금밖에 알지 못한다고 했어요. 나중에 농부가 되지 않

을 것이기에 도움되는 것이 없다는 학생들도 여럿이었죠. 우리학교가 농사를 짓는 이유는 농사를 통해 얻고 배울 수 있는 가치들이 중요하기 때문이었지만 정작 학생들은 그 가치들을 느끼고 공감하고 있지 않았어요. 하지만 농사가 가지고 있는 가치들: 생활의 자립과 노동, 공동체, 노력의 성취감, 기쁨, 몰입 등은 쉽게 느끼거나 체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해요. 농사가 무엇을 가져다 줌을 알고자 한다면 밭에 가야하고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현재, 학교 받은 학생들에게 너무나 먼 곳입니다.



학교 밭 = 우리 밭?

설문조사를 통해 84명의 학생들이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 동안 밭에 몇 번 갔는지 알아보았어요. 84명의 평균을 내보니 7.8번. 여름방학을 제외한다면 거의 한 달에 한 번 밭에 가는 것이죠. 학교로부터 10~15분이 걸리는 학교 밭까지의 길은 대부분의 학생들에겐 참 멀고 귀찮은 길입니다. 그 길을 걸어서 갈 만큼의 매력을 밭에게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한 달에 한 번 꼴로 밭에 가는 것은 농작물을 기른다고 하기 보다는 농작물 혼자 극한 생존기를 쓰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군요. 하지만 그럼에도 학교 밭의 한 쪽에서는 매년 싹이 올라오고 잎이 자라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농사쌤 재형쌤과 농사 작업장 학생들이 매주 밭에 가서 농작물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밭에

서는 우리 모두가 함께 먹을 농작물들이 자라요. 올해 겨울 김장 때도 학교 밭에서 키운 배추와 무를 사용했죠. 다만 올해 사용한 배추와 무는 학생들이 심은 것이 아니에요. 시기 상 여름방학에 선생님들이 심으셨는데요. 학교 밭에서 함께 일하고 그렇게 재배한 배추와 무로 김치를 만들어 먹고 있는 학생들은 놀랍게도 그것들을 누가 심었는지 알지 못했어요. 설문 조사 결과 84명의 학생 중 단 9명 만이 선생님들이 심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가고 싶지 않고, 누가 심었는지 알 수 없는 농작물이 자라고 있는 학교의 밭을 과연 학생들의 밭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저 땅만 파고 있다면

지난 10월 노작의 날, 많은 학생들이 일하지 않았던



이유가 여기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설문 조사를 통해 84명의 학생에게 “노작의 날, 자신이 밭 일을 하는 이유가 뭐야?” 하고 물었습니다. 84명 중 24명

(28.6%)으로 “쌤들이 하라고 시켰기 때문에” 하는 학생들이 가장 많습니다. 13명(15.5%)는 해야 하기 때문에, 교육과정 이수를 받기 위해 합니다. 작년 여름, 노작의 날 때 학생들은 밭에 모여 감자를 캐면서도 감자를 언제, 누가 심어서 길렀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냥 감자를 캐라고 해서 땅을 팠는데 감자가 나왔던 거죠. 학생들은 노작의 날에 모여 풀을 뽑으면서도 이 풀을 뽑는 이유를 듣지 못합니다. 이곳에 풀이 왜 있으면

안되는지, 오늘의 김매기가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 그렇게 자란 농작물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게 될지, 무엇이 기대될지 모르고 풀을 뽑습니다. 감자를 캐면서도 이 감자가 어떻게 심어지고 어떻게 자랐는지, 지금 감자를 캐는 이유가 무엇이고 수확한 감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감자를 캐고 있습니다. 현재 노작의 날 속에 가득이나 힘든 일에 동기와 힘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끝날 시간이 다가옴과 모두 고개 숙여 일하는 모습이 일을 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우리의 밭에서 우리를 위해 일한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면 노작의 날은 학생들에게 의미가 없고 그 안에는 학교 농사가 가지고 있는 가치들도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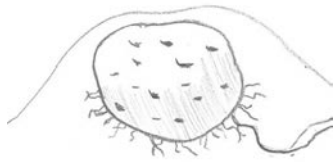


씨 뿌리고 물 주고 그리고...

농사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알기 위해선 밭에서 즐거움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즐거움이 있어야 밭에 자주 가게 되고 그렇게 밭에 가서 농사를 해야 무엇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농사를 재미있는 일로 만드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설문 조사를 통해 84명의 학생에게 학교에서 하는 농사가 재미있는지 물어보았는데 재미있다고 한 학생은 84명 중 12명(14.3%) 밖에 없었습니다. 재미없다고 한 학생은 그보다 20명 많은 32명(38.1%)이었죠. 나머지 40명은 그 가운데 있어요. 재미있지 않은 이유를 들어보면서 알게

된 점은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농사 = 노작이고 노가다라는 것입니다. 다 마치고 나면 뿌듯하지만 하면서 즐거움을 느끼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농사가 좀 더 즐거운 일이 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에 지난 1학기 움직이는 학교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도시에서 농사를 하는 모습이 궁금해 찾아갔던 도시농업 단체에서 나는 농사에 대해 그동안 모르고 있던 것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몰랐던 것들을 알아가다 보니 직접 농사를 해서 배운 것들을 써먹고 싶다는 생각이 커지더군요. 그간 학교에서 농사를 했음에도 모르는 것이 많다는 걸 알았는데 그럼 현재 학생들은 농사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을까? 궁금해졌습니다.

학생들에게 두 개의 퀴즈를 내보았어요. 첫 번째 퀴



즈는 감자에 관한 것입니다. 올해도 9반 중 5반이 감자를 심기로 계획했는데요. 감자를 키울 때는 ‘북주기’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북주기란 자라면서 땅 위로 올라온 감자를 주변의 흙으로 덮어주는 것인데요. 일부 줄기의 끝이 커져 생기는 감자는 땅 위로 올라오려는 특성이 있어요. 하지만 감자는 햇빛을 보면 색이 변하고 독성을 띄기 때문에 그냥 두면 안됩니다. 이것이 북주기를 하는 큰 이유죠. 매년 감자를 심었던 학생들은 북주기를 하는 이유를 알고 있을까요? 설문 조사 결과 84명 중 단 9명(10.7%)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퀴즈는 토마토에 관한 것입니다. 토마토 역시 매년 초여름이면 너도나도 심어 먹었던 것인데요. 토마토 농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



결순’을 없애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생겨나 중심을 잡아주는 줄기가 원줄기입니다. 원줄기의 마디에서 잎이 나고 토마토 열매가 열리는 것이죠. 원줄기와 잎 사이에서 조그맣게 나

는 것이 바로 ‘결순’인데요. 결순은 자라는 속도가 매우 빨라서 금방 원줄기만큼 커집니다. 토마토 줄기가 많아지면 열매가 더 많이 열릴 거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영양분이 여러 곳으로 퍼져 오히려 열매가 잘 열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결순을 제때 없애야 하는 이유죠. 매년 토마토를 심었던 학생들(84명) 중 24명(28.6%)만이 결순을 없애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매년 심고 길렀던 것들이지만 어떻게 길러야 하는지를 아는 학생들은 많지 않습니다. 농작물을 키우는 과정 속에는 영양분을 주고 잎을 솎아주고 지주를 세우고 풀을 뽑아주는 등 많은 일들이 들어 있지만 학생들이 아는 농사란 풀을 뽑고 물을 주는 것 뿐입니다. 올해 교육과정이 개편되면서 매년 있었던 농사 기초 수업이 반별 농사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농사 짓는 방법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사라졌지요. 궁금하다면 책이나 인터넷에서 충분히 정보를 알아볼 수는 있지만 그 전에, 학생들이 농작물을 잘 자라게 하기 위해 해볼 수 있는 일들이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시도해본다는 것이 농사를 조금 더 능동적이고 흥미 있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달걀껍데기를 잘게 부셔 식초에 넣어 하루가 지나면 ‘난각칼슘’이 됩니다. 이를 물에 희석하여 열매가 열리는 식물의 잎에 뿌려주면 칼슘이 보충되어 열매가 더욱 잘 자랄 수 있게 해줍니다. 토마토

가 터지거나 썩는 것도 막아주죠. 이처럼 농작물을 위해 어렵지 않게 해볼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이를 조금씩 학생들과 나눈다면 더 활기찬 반별 농사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만큼 농사는 재미있는 일

학교 밭은 너무나 멀고 노작의 날은 그저 힘듭니다. 반별 농사는 재미가 없지요. 학교 밭이 멀지만 많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농사가 아니더라도 학교 밭에서 다른 활동을 할 수도 있고 ‘텃밭 영화관’을 개장할 수도 있습니다. 밭에서 재배한 것으로 같이 음식을 만들어 먹거나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밭이 그저 먼 곳, 재미없는 곳이 아닌 활발한 공간, 잠시 들렀다 오는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야 ‘우리의 밭’이 되고요.

노작을 할 때는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풀을 왜 뽑는지, 감자를 왜 캐는지 알아야 동원이 아니라 공동체

의 노작이 되고 힘들어도 함께 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농사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는 시도해봐야 합니다. 잘 자라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해보고 그 결과를 기대할 때 흥미가 생기고, 그렇게 기른 것을 먹었을 때 기쁨을 느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농사에 필요한 다양한 일들이 있음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학생들이 농사의 가치를 아는 것보다도 즐거운 마음으로 밭에 가게 되면 좋겠다”는 재형쌤(농사쌤)의 바람을 나도 가집니다. 그만큼 농사가 재미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죠. 학생들이 더 흥미를 가지고 열심히 농사를 할 수 있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고민해봤지만 쉽게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모두 선생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한 두 명이 시킨다고 될 일도 아니지요. 함께 고민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민이라면 언제나 연작²⁾ 환영입니다.



2) 같은 밭에 하나의 농작물을 연속으로 기르는 것. 농작물은 지마다 많이 끌어다 쓰는 영양분이 달라요. 때문에 같은 밭에 하나의 농작물을 연속에서 기르면 땅 속 영양분의 균형이 맞지 않아 연작 피해를 입기도 하지요.



한 평생 빈둥거리며 살고 싶다

강도운 졸업생(10학번)

2010년 봄 입학, 2015년 겨울에 간디학교를 졸업했다. 어느 날 문득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 어떻게 지내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달라는 연락이었다. 막상 이야기를 시작하려니 뭐라고 해야할지 하나도 모르겠다.



스무살. 학교를 졸업했다. 일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했어야 했다. 졸업 후 일년은 백수로 놀 계획이었는데 그게 내 마음처럼 쉽지 않았다. 놀아본 사람만이 논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니 어색했다. 때마침 영농조합법인에서 천연화장품 사업을 시작하려고 사람을 찾고 있었고, 전공이랄 것 까진 없었는데 내가 천연화장품 만들기를 2년 정도 해봤다는 이유로 입사가 결정됐다.

첫 직장에서는 딱 일년을 일했다. 내 손으로 작은 브랜드를 런칭시키는 일을 경험했다. 하던 일은 두달정

도만에 금방 끝나버렸고, 마무리 될 즈음 나는 또 다른 업무를 인수인계 받았다. 원래 생들기름, 참기름 등 저온압착유를 생산하던 회사였기에 고객관리, 발주 및 포장, 발송 등을 담당하게 됐다. 인터넷에서 볼 때엔 몰랐는데 막상 내 일이 되고 나니까 말로만 들던 진상 고객이 점점 무서웠고 억지로 목소리 톤을 높여 웃는 일도 정해져 있는 시간도 부담스러웠다. 점점 입사초기에 생각하던 일과 거리가 멀어지며 괴리감이 들었다. 이맘때쯤부터 고민이 많이 생겼다. 애초에 더 공부하고 싶어서 시작했던 일은 끝나버렸으니 이 회사에서 더 이상 얻을 게 없겠구나 싶더라. 몸은 안 아픈 곳이 없었고 마음은 여유가 없이 지치고 비어버려서 퇴사를 해야겠다, 생각했던 것 같다. 이맘때쯤 다른 사람들보다 간간히라도 주고받던 연락이 힘들어져버렸고 메신저에서 해방되고 싶었다. 낮이고 밤이고 울리는 업무용 카톡이 신경 쓰지 않으려 해도 정신을 갇아먹는 것 같았다. 거의 모든 사람과의 연락을 이어가지 못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나 스스로를 너무 고립시키는 일

이 아니었을까.

스물한살, 퇴사를 했다. 후련하기도 하고 미련도 남았다. 조금 더 견뎠으면 더 발전할 수 있었을까? 너무 쉽게 포기해버린걸까? 여기보다 더 좋은 근무조건을 찾을 순 있는 걸까. 사람이 좋으면 일이 힘들고 일이 쉬우면 사람이 힘들다던데, 싶었다. 통장엔 퇴직금이 생겼다.

사실 학교 다닐 땐 잘 몰랐는데 근로기준법강의를 아무리 들어도 활용하기는 힘들었다. 워낙 작은 회사라 법 적용에서 제외되는 부분이 많았고, 말하고 싶어도 대놓고 이야기 할 수도 없었다. 기억에 남는 강의 내용도 없었다. 이럴줄 알았으면 조금 더 열심히 수업을 들어들걸. 생각했다. 내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겪어보기 전까지 당연히 받는 줄만 알았던 실업급여도 받지 못했다. 그래도 이제 진짜 자유였다. 아팠던 곳 치료도 받고 여행도 다니고 못 만났던 친구들도 만나야지. 정말 일년은 놀아야지. 그렇게 생각했다.

지금 일하고 있는 곳은 고등학생 때 무빙스쿨을 했던 곳이다. 집에서 뒹굴거린지 한달이 조금 덜 되었을 때였나? 같은 지역에 있지만 사실은 인연이 더 없을 거라고 생각한 곳에서 뜻밖의 연락이 왔었다. 사람을 구하고 있는데 혹시 같이 일해볼 생각이 있냐는 얘기였다. 누가 그랬더라. 너는 졸업하면 꼭 시민단체활동가로 살 것 같다고 그랬었는데, 말이 씨가 된건지. 그렇게



지리산생명연대라는 단체에서 활동가로 일하게 되었다. 투자할 수 있는 시간은 조금 더 자유로워졌다. 월급은 줄어들었지만, 마음은 훨씬 더 평화롭고 보람찼다.

그렇게 또 일년이 지났다. 나는 여전히 전문적인 지식에 대해서는 배워나가야하고 그저 처음 맡았던 일들만 조금씩 해나가는 중이지만, 지리산생명연대는 올해로 16년이 되었다. 고층건물 높이의 대형 댐이 지리산에 건설되지 않고 자연환경이 그대로 유지될 수도도록 지켜왔다. 지난 9월 18일, 국가주도 대규모 댐 건설계획이 앞으로 없을 것이고 현재 진행 중인 두곳을 제외한 남은 12곳에 대하여는 건설계획이 없음이 발표되었다. 지리산댐은 한국 대형댐 건설사에서 마지막 남은 한 곳이었다. 이번 발표로 사실상 백지화된 '댐 건설 장기 계획' 의 12개 댐 중 유일한 대형댐이었으며, 무려 20년이라는 지난한 역사를 지닌 댐 계획이었다.

“댐 정책의 인식체계를 건설에서 관리로 전환한다”는 환경부의 공식 발언으로 20년이 넘는 시간동안 지리산에 대형댐이 들어서지 않도록 함께 연대하고, 싸우며 자연환경을 지켜왔던 모든 노력들이 각광받는 순간이었다. 지리산생명연대가 간사단체로서 함께한 지리산댐백지화함양대책위는 그 시간과 노력을 인정받아 올해 sbs 물환경대상 시상식에서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물론 아직도 과제들은 남아있다. 정권이 바뀌면 언제 그랬냐는 듯 또 수면위로 올라올지도 모른다. 댐희망지신청제에 관련한 검토, 지리산댐 건설의 근거가 되기도 한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사업 전면 재검토를 이루어내야 한다. 하지만 가장 컸던 지리산댐이라는 이슈는 가라앉았고, 지리산생명연대의 역할이 끝난 것으

로 보는 시각들은 존재한다. 기타 환경현안들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에도, 수도권을 기준으로 시골에 있는 단체이지만 전국단위의 회원들과 함께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눈에 보이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후원금으로 먹고 사는 단체들은 대부분 그렇듯이 경제불황과 더불어 후원금이 점점 줄고 있어서 재정은 조금 열악하다. 지금은 분명히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논의 여부에 따라 어떤 문을 닫을 수도 있고 이 자리에 지역조직으로서 머무를 수도 있을 것이며 새로운 형식으로 바뀔 수도 있다. 나도, 단체도, 더 나아간 한 걸음을 위하여 함께 성장하고자 고민하고 있다.

졸업 후의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다. 쓰다보니 앞에서 조금 거창하게 늘어놓은 것 같은데.. 사실 일을 하며 살아가고는 있지만 여전히 생각은 없다.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고 싶은지, 어떤 모습일지도 모르겠다. 뚜렷한 목표의식이 없는 삶을 살고 있지만, 모자라거나 부족하진 않은 것 같다. 나는 여전히 텅굴거리며 노는 걸 좋아한다. 사회는 너무 빠르게 변화한다. 내가 한걸음을 겨우 걸었을 때, 저 멀리 앞서 뛰어가는 사람의 등을 보며 좌절하기도 한다. 누군가는 한심해보일지 모르겠지만 삶의 비전이라는게 꼭 필요한 요소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주제넘을지 몰라도 문득 들었다. 대안학

교를 졸업했고, 대학을 가지 않은 흔히 말하는 비주류 인생이지만 남들과 다른 길로 가는 것에 불안함을 느끼지는 않았다.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취미생활 하나쯤 즐길 수 있으면 그걸로 충분한 게 아닐까. 어떻게든 살아가기만 하면, 그걸로 다 괜찮아 보인다. 마지막으로, 내가 이 소식지를 통해 근황을 전했듯이 이 글을 본 누군가의 이야기도 계속해서 전해졌으면 한다. 오래된 지인과의 관계는 언제나 즐거운 법이고 나도 그리고 우리 모두 반가운 연락을 통해 일상의 활력소가 추가되었으면 좋겠다는 작은 바람을 담는다.



간디학교, 그 일상의 기록.

윤수민 기자(4학년)

내 안의 숨은 작가를 찾는 수업!!

‘일상의 기록’은 매주마다 각자 써온 산문(주로 수필)을 읽고 감상을 나눈다고 합니다. 수업교사이신 덕래쌤도 매주 무엇을 쓸지 고민하시다가 머리털이 다 빠지셨다는 소문도 있는데요. 매주 한편의 글을 쓰는 것이 어려운 일이지만 항상 다짐을 지키며 글을 쓰는 모습이 정말 멋져 보입니다. 글을 통해 일상을 바라보고 고민하는 학생과 교사.

이 멋진 수업을 통해 나온 글 한편 함께 보시죠!

미안해, 세인트 셀린

이덕래

고등학교 시절을 생각하면, 길고 긴 겨울만 있었던 것 같다. 매일 즐렸고 밖은 추웠다. 늘 나 자신과 싸우고 있었지만, 이기는 법이 없었다. 나와 밖의 균형을 전혀 맞출 수 없었다. 창밖으로는 뿌영게 눈이 내리고 있고, 나는 그저 교실 안에서 쫓 수 없는 무언가를 갈구했다. 뭔가 결정적인 것이 부족했다.

그런 밤이었다. 독서실을 어슬렁거리던 난 한 친구 책상에서 항공우편 봉투에 담긴 편지를 발견했다. 파란색과 빨간색 빗금이 테두리를 두른 항공우편 봉투는 곧 해외에서 온 편지였다. 봉투 왼쪽 하단에는 파란 박스에 'VIA AIRMAIL' 또는 'PAR AVION'이라고 인쇄되어 있었다. 해외 우편은 모두 항공우편 봉투에만 넣어 보내야 하는 줄 알았다.

그 친구, 준길이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까까머리였다. 나보다 훨씬 공부에 대한 동기부여가 잘 되어 있었다. 면 단위에서 올라온 그 친구는, 남들보다 더 실용적인 헤어스타일을 하고 있었고 외모에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늘 같은 옷, 그리고 겨울임에도 추워 보이는 허름한 차림이었다. 친구들은 그를 '종길'이라고 불렀다.

그는 나와 친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밤의 항공우편 봉투는 내 흥미를 부쩍 잡아끌었다. “이거 뭐야?” 종길이는 펜팔 친구라고 했다. “편지 좀 봐도 돼?” 편지를 펼치고는 깜짝 놀랐다. 사람이 어떻게 글씨를 이렇게 정갈하고 아름답게 쓸 수 있을까? 색 바랜 푸른 사인펜으로 쓴 듯한 글씨는 전혀 흐트러짐이 없었고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글자의 오타도, 수정 자국도 없었다. 완벽했다.

프랑스 파리 근교에 사는 '셀린'은 까까머리

쫄깃이와 펜팔 친구였다. 우리처럼 고등학생이던 셀린은 소소한 소식을 재잘재잘 시시콜콜, 쫄깃에게 알리고 있었다. 그것도 한 땀 한 땀 종이에 새기듯이, 수공예 작품 같은 편지를 보내고 있었다. 그녀는 이 모든 글씨를 책상에 똑바로 앉아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썼음이 틀림없었다(편지를 쓰는 세인트 셀린!). 쫄깃이의 펜팔 상대가 어떤 사람일 지 몹시 궁금했다.

몇 가지를 더 물어본 끝에 쫄깃이가 펜팔을 그만뒀음을 알았다. 녀석은 학업에 정진하기 위해서라는 치사한 이유로, 성스런 셀린과의 펜팔을 끊었다고 했다(당시 우리는 고2였다). 속으로는 저 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놈이라고 생각했지만, 말하지 않았다. 대신 이렇게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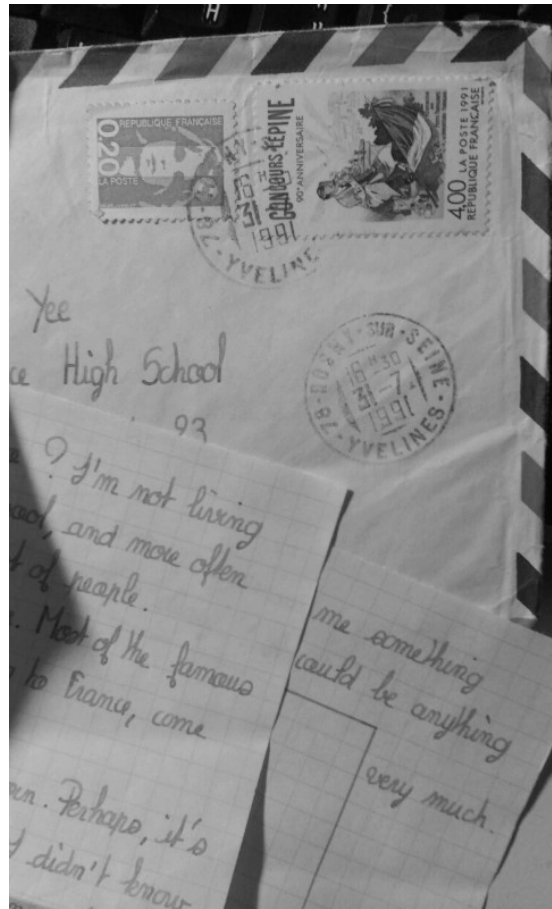
“내가 대신 답장 써도 돼?”

그렇게 나의 해외 펜팔이 시작되었다. 여자저차해서 내가 쫄깃이 대신 답장을 보낸다고, 셀린에게 썼다. 내 마음만큼이나 중구난방이던 글씨를 담은 항공우편은 정말로 비행기를 타고 프랑스로 날아간 모양이었다. 셀린의 답장이 일주일 뒤에 왔으니 말이다. 그때는 손편지의 시대였다.

셀린은 내게도 정성스러운 편지를 보내기 시작했다. 많이 기뻐다. 날아갈 것만 같았다. 내 일상에 이런 신선한 경사가 있다니! 그러나 이도 잠시. 곧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문제는 나왔다. 나는 그녀처럼 할 말이 많지 않았다. 그리고 쓰다 보면 늘 우울해졌다(학교에 있는 것 말고는 별일이 없는데, 내면을 쥐어 짜려니 빈약하고 부실했다). 셀린처럼 주변을 관찰하고 애정 어린 눈빛으로 바라볼 여유도 없었다. 그런 성격을 타고나지도 않았다. 호기심은 왕성하지만, 대책 없는 부류다. 쫄깃이의 책상에서

우발적으로, 또 충동적으로 시작된 펜팔은 점점 더 부담스러워 졌다. 편지 쓰는데 서너 시간이 걸리곤 했다. 영어로 편지 쓰는 것도 어려웠고, 쓸 내용도 마땅치 않았고, 시간도 너무 잡아먹었다. 아무것도 포기하지도 않고, 어떤 것에도 집중하지 못한 나는 언제나처럼 자신을 괴롭히고 있었다.

게다가 주제넘게도, 그녀처럼 글씨를 잘 쓰고 싶었다. 내게는 셀린처럼 글씨를 잘 쓸 능력이 없었다. 글씨 하나하나에 집중하다 보면 글씨 줄이 뻐뿔어졌다. 시작할 때 글씨 각도와 끝날 때의 글씨 각도도 달랐다. 쓸 때마다 기분이 나빠졌다. 아무리 애써도 셀린처럼 수공예 작품 편지를 쓸 만한 능력이 안 됨에도, 그렇게 쓰려고 노력했다. 결과적으로



셀린에게 점점 더 못생긴 편지를 보내고 있었다.

시간이 흘러 내 고등학교 시절을 떠올리고 셀린을 생각한다. 그녀가 지구 반대편의 생면부지 남자애에게 보내준 정성은 놀라웠다. 그녀가 책상에 앉아서 편지를 쓰는 순간을 상상해 보면 송고하기까지 하다(세인트 셀린!), 안달하지 않고 충실하고 진실하게 편지 쓰기에 몰입한 여자가 떠오르기 때문이다. 그녀는 놀랍도록 진중했다. 프랑스의 십대가 모두 그렇지는 않겠지만, 지금의 나조차도 범접하기 어려운 어른스러움이다. 동양의 어리숙한 고빠리에게 편지 쓰는 게 어떤 의미와 효용이 있는지 생각했을까? 나는 초기 호기심 단계를 지나서는, 내가 왜 이 친구에게 편지를 쓰는지 혼란스러웠다(종걸이를 원망하기도 했다).

왜 그냥 못 쓰는 글씨 그대로 편하게 편지를 쓰지 못했을까? 그걸 쓰면서도 영어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게 아닐까? 펜팔을 통한 영어공부의 효용성과 내 시간의 소중함을 저울질했던 게 아닐까? 셀린, 너에게 전해질 수 있는 말은 아니지만, 나는 너의 펜팔 상대로는 많이 부족했어. 정말 미안해.

나는 셀린에게 보내는 항공우편에 사진을 하나 끼워 보냈고, 그녀 사진도 보내 달라고 썼다. 와! 친절한 그녀는 선선히 사진을 보내 주었다. 르노 자동차를 배경으로 어색한 자세를 취한 전신사진이었다. 덩치가 큰 그녀는 딱 봐도 미녀는 아니었다(무엇을 기대했던 걸까?). 그녀는 내게 보낼 사진을 따로 찍은 것처럼 보였다. 세인트 셀린에 대한 신비감은, 사진을 받고 나서는 급속히 사라졌을 지도 모른다. 이것도 미안해.

손편지의 시대도 가고 펜팔의 시대도 갔다. 셀린은 잘 살고 있을까? 종걸이, 너도 잘 살지? 페이스북에서 셀린의 이름을 쳤지만, 같은 이름은 없었다. 어쩌면, 다행인 것 같다.

개인 요청 때문에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글은 못 실어 아쉽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좋은 글 많이 써주세요! 🍀

간디인의
짧은소식



삼간디 음악제

10월 18일 제천간디학교에서 간디인들의 대축제가 열렸습니다! 바로 삼간디 음악제인데요. 앗..! 이런, 이렇게 슬픈 소식이... ㅠㅠ 삼간디 음악제 최초로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우천으로 공연이 취소되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공연이 취소된 건 너무나도 아쉽지만 3간디 여러분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논문 발표

그날이 결국 찾아왔습니다. 10월 23~24일 양 이틀에 걸쳐 3학년들이 논문발표를 했습니다. 두근두근! 두근두근! 이 떨림을 이겨내고 과연 우리 3학년들은 논문의 최종관문! 논문발표를 할 수 있을까요? 으아아 모르겠다..! 화이팅!!!



인문학 캠프

〈다들 모여!〉 11월 3일부터 8일사이 6학년의 인문학 캠프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아주 쟁쟁한 주제를 가지고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고 해요 :)



문화의 밤 s 래퍼 실리붓

11월 15일 A YO! SAY~ HIP-HOP~! 이번에는 철수쌤의 조카이자 핫한 래퍼 실리붓님이 오셔서 멋진 랩 공연을 하셨습니다. 우리학교에 자랑 랩 크루 디폴리스도 함께 공연을 했습니다.



김장

11월 17일 온 간디인이 한데모여 다 같이 내년
에 먹을 김치를 담갔습니다! 배추 절이기, 갓손
질하기부터 시작해 양념 문히기까지 손수 했는
데, 이번 김치... 정말 최고입니다~!



유세

11월 22일,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은 없다! 내
년에 우리들을 이끌 학생회장 선거 유세 및 1차
후보자 토론회가 있었고 기호 1번 때밀이당과
기호 2번 빠꾸없당이 경쟁을 펼쳤습니다. 과연
누가 하늘에 태양이 될까요?



인턴십 발표

11월 14일 날씨 좋은 어느날 5학년들이 인턴십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세상 밖으로의 날개짓
을 준비하며 날개를 다듬는 5학년들에게 힘찬
응원을 보냅니다!



10월 29일 ~ 11월 1일
국민의 힘
이영희
 5호선 영등포구역
 2호선 가락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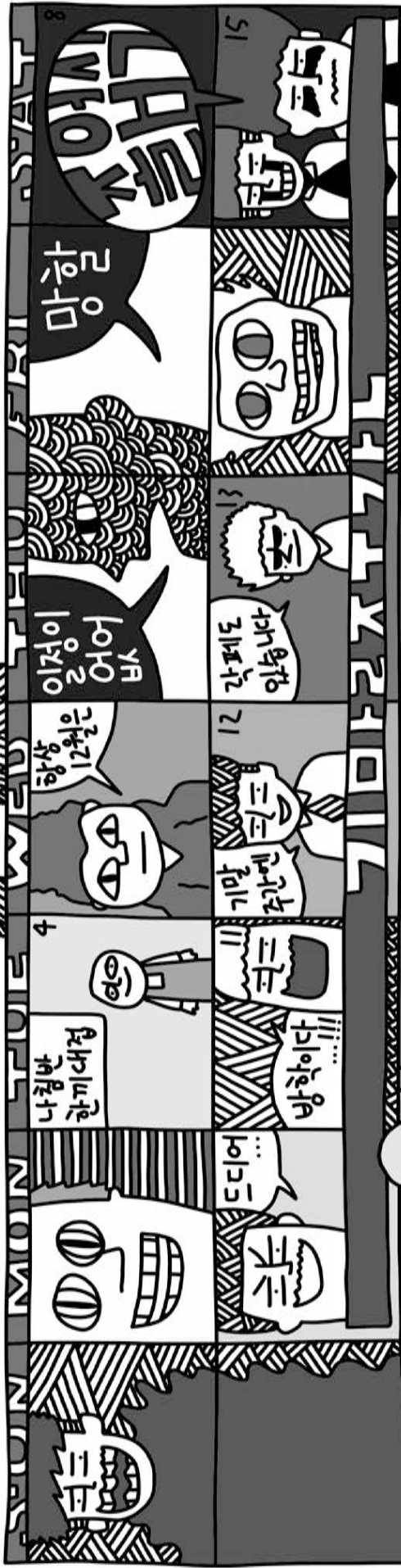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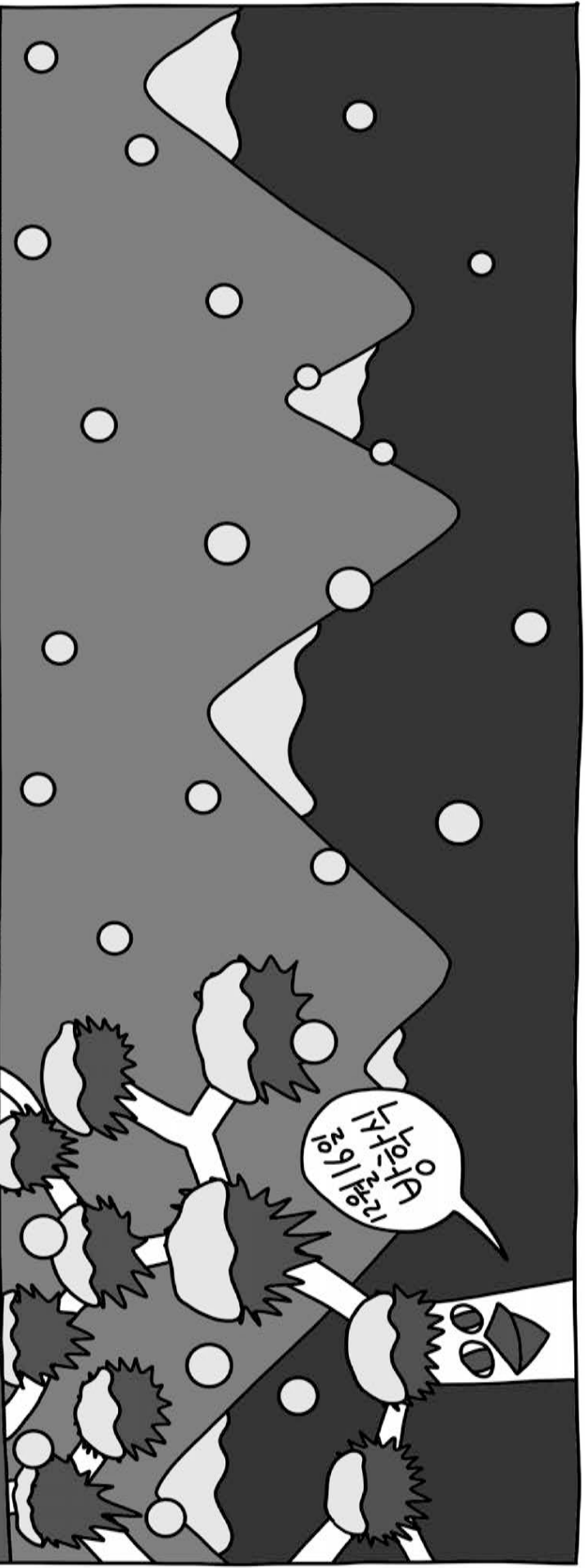
4 매주 한 바퀴, 화요일 점심 환풍기 전교생에게 대접합니다!
 5 아라미대선 한끼대선 한끼대선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체온



11월 19일 토요일



권윤서 기자 (3학년)

이번호도 즐거웠습니당!

같이 기사 쓴 특집팀 너무너무 수고했어요 방학 때 푹 쉬고 봄호 때 만남시당~ 안녕



김담 사진기자 (4학년)

팔로알토 - 피나콜라다 (Pina colada) (Feat. Owell Mood, OLNL)



김서준 기자 (2학년)

기자가 게을러서 마감 당일 날 까지도 기사를 완성하지 못한채 여행중에 기자후기를 쓰게 되었네요ㅠㅠ 그래도 이번 디폴스와의 인터뷰, 화보 둘 다 정말 재미있어서 나를 기분이 좋습니다?? 그래도 다음 호에는 마음을 잘 지키도록 노력할게요!! 이제 제가 벌써 3학년이라니 믿기지가 않아요ㅎㄷㄷ 이제 제가 놀 수 있는 시대는 다 끝이 났군요... 다음 해에는 지금보다 더 열심히 살게요!! 그럼 안녕히~



김재하 삽화기자 (4학년)

헛



박우제 편집장 (4학년)

젠장.. 힘들다..



윤수민 기자 (4학년)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기사에 신경을 많이 못 쓴것 같다...정말 죄송하고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담 삽화기자 (2학년)

첫: 첫 겨울호를 마쳤습니다.

눈: 눈이 다 녹은 뒤에 만나요.



이성민기자 (4학년)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정말 즐거운 취재였던 것 같아요~ 특집팀 너무 수고 많았고 일상다반사 모두 수고 많으셨어요!! 이번 호엔 기사도 무려 3개나 쓰고 역시나 정신없는 한달이었지만 덕산엔 첫눈이 왔고 올해도 한달 밖에 남지 않았네요.. 2019년 봄호에서 만나요~



이재형 글기자 (5학년)

다음호에서 뵙서.
여태 미루다 미루다 새벽이 와
반쯤 감은 눈으로 적은 글들을
애써 넘기며 읽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이한결 글기자 (5학년)

5년 동안의 기자 생활을 드디어 마무리 합니다. 기자가 되어서 품 잡아 불러 시작했던 일이 너무나 많은 걸 안겨줬습니다. 5년 동안 18 개의 소식지를 만들면서 함께해준 선배, 동기, 후배 기자와 선생님들 모두 고맙습니다. 덕분에 글을 쓸 수 있었고, 덕분에 울고 웃으며 떠나게 되었네요. 모두 간디in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조연지 기자 (4학년)

열심하한 나를 칭찬하고 글 퇴고 할 때 도와준 썩대머리씨 감사베리 감사~ 모두들 수고하셨어요!!!



조예나 기자 (1학년)

하하하!! 제가 요번호는 마감을 지켰습니다◎▽◎!!이제 우제오빠에 잔소리를 안 들어도 되네요! 내년에는 더욱 더 좋은 기사로 돌아오겠습니다! 다들 1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최문형 사진기자 (5학년)

많은 순간을 남길 수 있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고마웠습니다.



최유경 기자 (5학년)

뭔도 모르고 들어온 신입기자가 벌써 일상다반사로서의 마지막 기사를 마무리 합니당 쓰고 단 시간을 함께 한 일상다반사에게 응원을 보냅니다:-) 언제나처럼 즐겁게 읽어주세요!



최현서 사진기자 (1학년)

끝나갈때쯤 아파서 잘 마무리를 못 지었네요....ㅠㅠ죄송합니다 다음호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간쫘소 글 써 준 우제오빠 고마워!!



2018년 10월 2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간디공동체를 후원해 주신 분들입니다.
 CMS와 물품 후원 등 후원인의 따뜻한 마음은 제천간디장학회, 제천간디학교 체험학습비와 사회 활동비, 대안교육연대 지원금, 덕산지역 아동단체 운영비로 전달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곳에 잘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CMS후원 396명 804건 11,823,000원

강경선 강나영 강명이 강미리 강민택 강상진 강수돌 강승구 강영상 강응택 강재은 강치호 강호수 고경태 고수원 고은주 고화라 공지환 곽영현 곽영호
 구경란 구자민 권승호 권영숙 김가영 김갑유 김경미 김경민 김경순 김경자 김경희 김계숙 김광식 김구환 김남수 김대진 김덕수 김도연 김란경 김명구
 김명숙 김명철 김명희 김문혁 김문환 김미선 김미애 김미정 김백영 김병섭 김봉자 김삼부 김상덕 김선화 김선희 김수진 김승진 김아미 김영경 김영규
 김영삼 김영숙 김영우 김영철 김왕균 김용규 김용남 김용섭 김용철 김우정 김유태 김윤성 김윤찬 김윤하 김은미 김은숙 김재성 김정라 김정미 김중성
 김중우 김중태 김지식 김지연 김지영 김지혜 김창년 김학규 김한기 김혁동 김 현 김현식 김현일 김현중 김현진 김혜란 김혜숙 김혜정 김호연 김희균
 니동은 니영미 니윤정 남용기 남지은 남호섭 노경수 노경숙 노상규 도수경 리기호 라성호 마석훈 마정에 문성룡 문신호 민병선 박경애 박경일 박경호
 박경희 박동순 박동필 박명란 박미정 박미향 박서영 박선애 박성수 박영문 김숙정 박영선 박인옥 박장식 박진수 박현숙 박혜연 박호성 박효정 박후조
 박홍식 방대현 배영수 배필늘 백미숙 백병부 변기영 변종일 서자스민 서홍원 성정미 소연섭 손동훈 손병근 손순희 손정민 손정현 손진근 손진윤 송민
 혜 송지은 신동운 신윤숙 신주영 신지성 신지수 신한솔 신현정 안두용 안미숙 안성현 안정환 안종철 안주연 안주현 안준영 안진희 안준자 안효진 양병만
 양상모 양승이 양정호 양화숙 양후남 엄상순 여지현 오경석 오명택 오병갑 오보환 오영진 오의석 오정훈 오석희 이상섭 이상호 우종걸 원정석 원한구
 유경오 유병식 유선기 유아름 유아희 유인수 유일상 유준하 유중선 유지상 유춘자 유태규 유태욱 윤민호 윤보영 윤수민 윤숙경 윤승재 윤양수 윤은주
 윤정숙 윤호선 은종복 이경희 이광일 이근행 이기호 이도연 이동우 이명조 이미경 이미숙 이민수 이민주 이민지 이병규 이보완 이 불 이봉준 이상래
 이상복 이상윤 이상현 이선애 이선재 이소안 이수미 이순영 이순화 이슬비 이승섭 이승욱 이승환 이시하 이영주 이웅수 이원범 이윤종 이윤철 이은정
 이은희 이인호 이재성 이재운 이정선 이정섭 이정아 이정연 이정열 이정태 이종주 이종태 이준용 이지은 이진우 이철희 이한복 이한진 이항미 이현주
 이혜림 이흥구 이효경 임남규 임다운 임반석 임병포 임봉규 임선일 임영빈 임은숙 임재혁 임진희 장규식 장미자 장진숙 장화수 장희숙 전경일 전경희
 전미영 손현석 전병택 전수미 전영복 전해룡 정나형 정문자 정상인 정성욱 정연경 정영수 정영숙 정영환 정이영 정재민 정재윤 정정민 정종명 정지은
 정 철 정태군 정희정 조경선 조경희 조동일 조봉석 조상희 조성은 조숙자 조영도 조옥순 조윤정 조은아 조찬규 조하한 주주자 지명석 진숙경 진은주
 차상진 차영순 채신자 채현자 천희진 최낙진 최도연 최민현 최범식 최선주 최선희 최소영 최 속 최신영 최연호 최영남 최영준 최 용 최인화 최일훈
 최재화 최중현 최진웅 최철훈 최홍식 허승렬 허영아 허윤주 허중수 하태광 한광덕 한민경 한 현 하루리 허미경 허영순 허인영 홍금자 홍수연 홍수정
 홍영옥 홍채현 홍현일 황국덕 황들남 황소연 황현정 (주)두인기전 (주)우영산업 덕산LG주유소 어통수산(주) 유원유통 명보산업개발(주) 선미식품 성호중
 합주방 형제수산

- * 13창수네 쌀 6가마, 사과 6콘티박스, 사과 2박스, 사과즙 6박스 보내주셨습니다.
- * 15연지 · 18재영네 단감 2박스 보내주셨습니다.
- * 17재훈네 굴 5박스 보내주셨습니다.
- * 주변 분들에게 간디공동체 CMS후원 가입을 권유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 * 소식지 받으실 주소, 후원 계좌 변경, 기부금영수증 발급에 관한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 * 간디공동체는 후원인의 개인정보를 소중하게 보관합니다.

제천간디학교 살림터 043) 653-5791 / 팩스 043) 653-5798

